



2019 학산마당예술 '놀래'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들어가며

미추홀학산문화원 2019년 공동체예술교육사업-시민창작예술활동지원

'마당예술동아리' 활동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마당예술동아리'는 미추홀구의 각 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예술가와 함께 마을의 이슈와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공동창작하고,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동아리입니다.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6년째 맞이했으며,

그동안 103개의 동아리가 103개의 작품을 만들었고,

총 1,240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2개 동아리, 105명의 동아리원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참여로 꽃을 피웁니다.

주민들은 작품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더불어 무대를 통해 참여의 가치를 관객에 전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문화활동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들어가며

5 목차

7 2019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8 2019 마당예술동아리 돌아보기

11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 ‘미추홀수다’

1) 지역의 이야기를 담다

2) 공동체와 마당예술동아리

3)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69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놀래’

70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98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시상식

101 학산마당예술‘놀래’ 5일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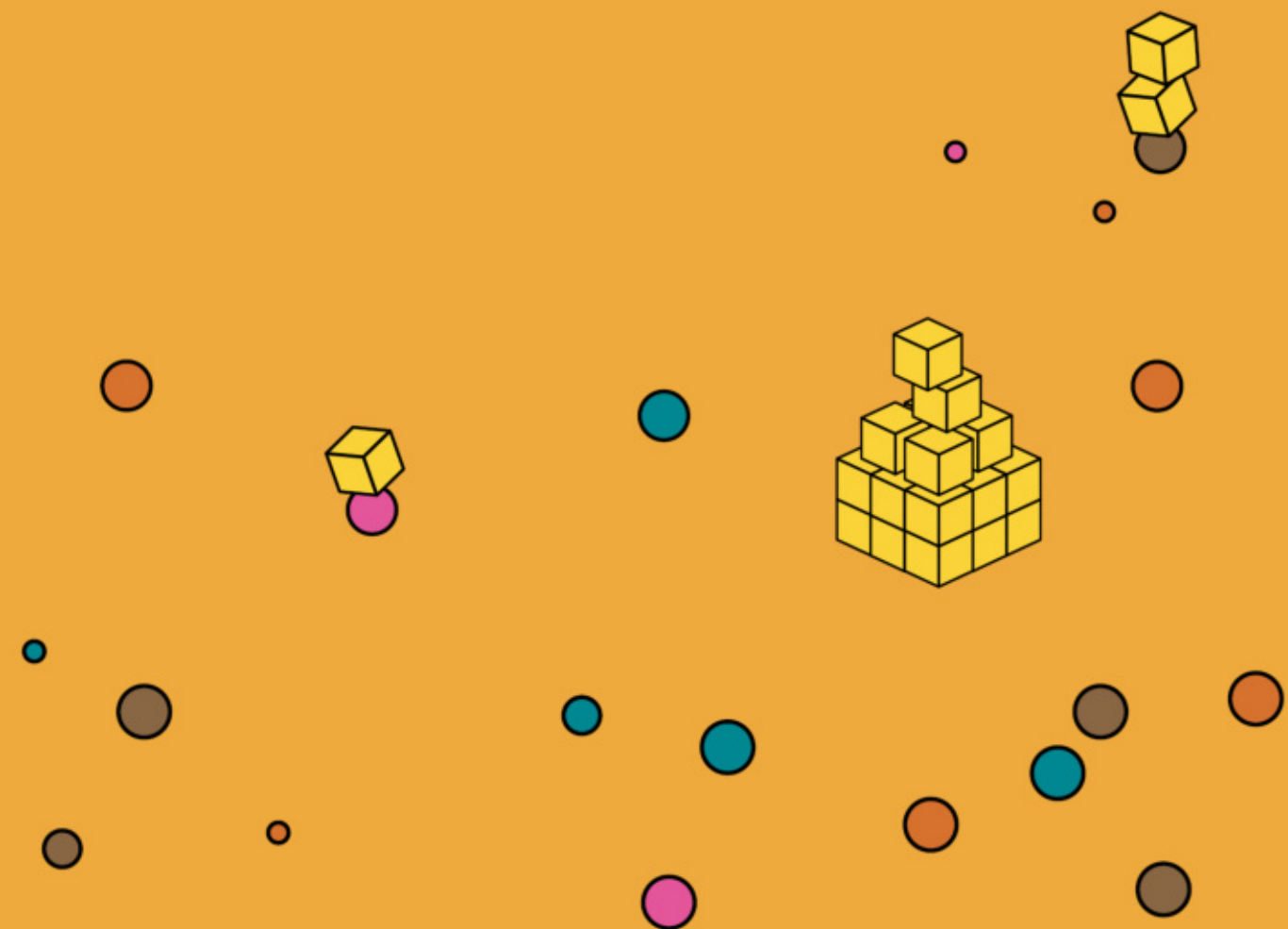
121 함께한 사람들

2019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2019 마당예술동아리 돌아보기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 '미추홀수다'

- 1) 지역의 이야기를 담다
- 2) 공동체와 마당예술동아리
- 3)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2019 마당예술동아리 돌아보기

마당예술동아리, 미추홀을 가득 채우다

마당예술동아리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예술가와 함께 마을의 삶을 문화 예술로 소통하며 이웃과 함께 마을 속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2014년도부터 올해 6년차를 맞이하는 2019년에도 마당예술동아리들은 미추홀구 곳곳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마당예술동아리는 어떤 사람들이지?

8살부터 91살까지, 80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

12개 동아리 105명이 참여했고, 연극, 풍물, 난타, 영상 4개 장르의 8명의 강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한 자율 참여자, 마을공동체 사람들, 시각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엄마와 아이, 한글교실 어르신, 재가노인 어르신과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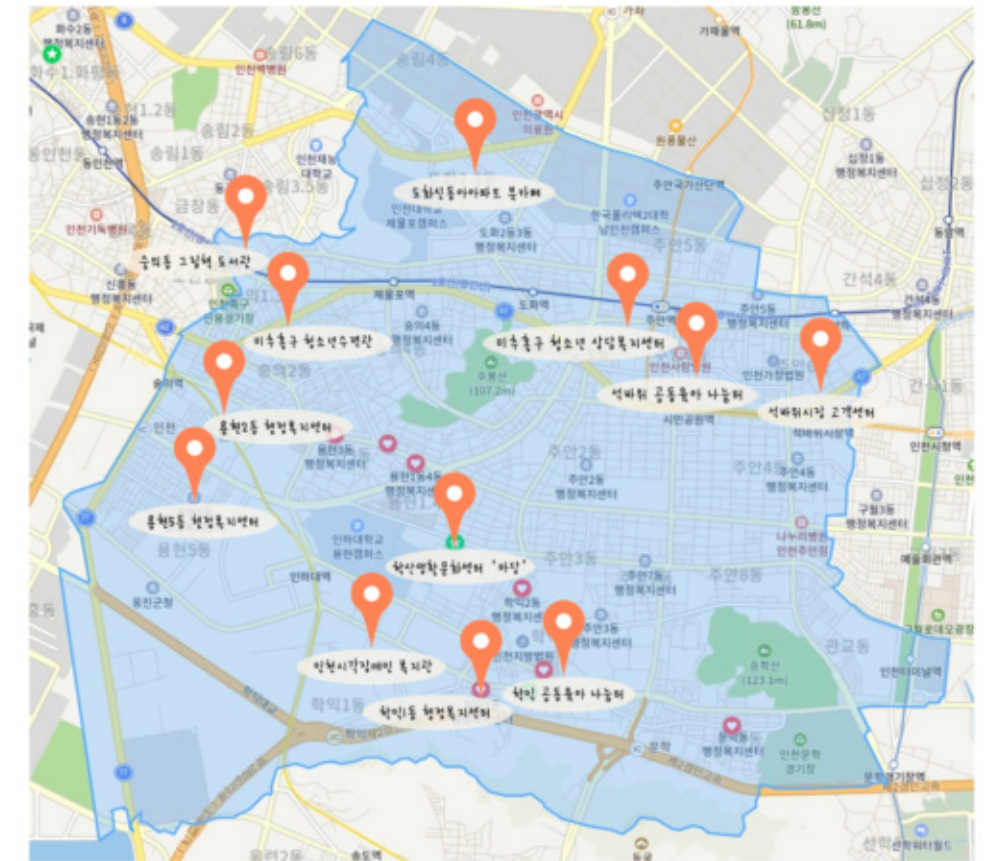
최고령 참여자
송의1.3동 '글보다 꽃말매' 이종임 (91세)



최연소 참여자
학익2동 '불타는 모난돌' 유단희, 장은호 (8세)



미추홀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당예술동아리



얼마나 활동했을까요?

2019년 4월 15일, 학익1동 '학나래두드림'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마냥'이 올 해의 첫 활동을 시작 하였고, 12월 28일 학익2동 '불타는 모난돌'이 마을발표와 함께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12개 동아리들은 각자의 일정에 맞춰 길게는 8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용현1.4동 '한결' 오리엔테이션



학익2동 '불타는 모난돌' 마을발표

● 공동창작과정



다가가기

마당예술동아리 회원 구성
사업취지, 운영방향, 참여의 중요성 공유



알아가기

놀이를 통한 창의적 발상법 훈련
즉흥 역할극으로 심리, 감정표현

이야기찾기

마을의 이슈찾기
생활 속 공감대 나누기
나의 이야기하기



함께 만들기

공동창작 마당극 공연 제작 (소품 등)
극적 구성 보완 및 연습



함께하기&나누기

제6회 시민창작예술제 -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참가
마을축제 운영 및 문화나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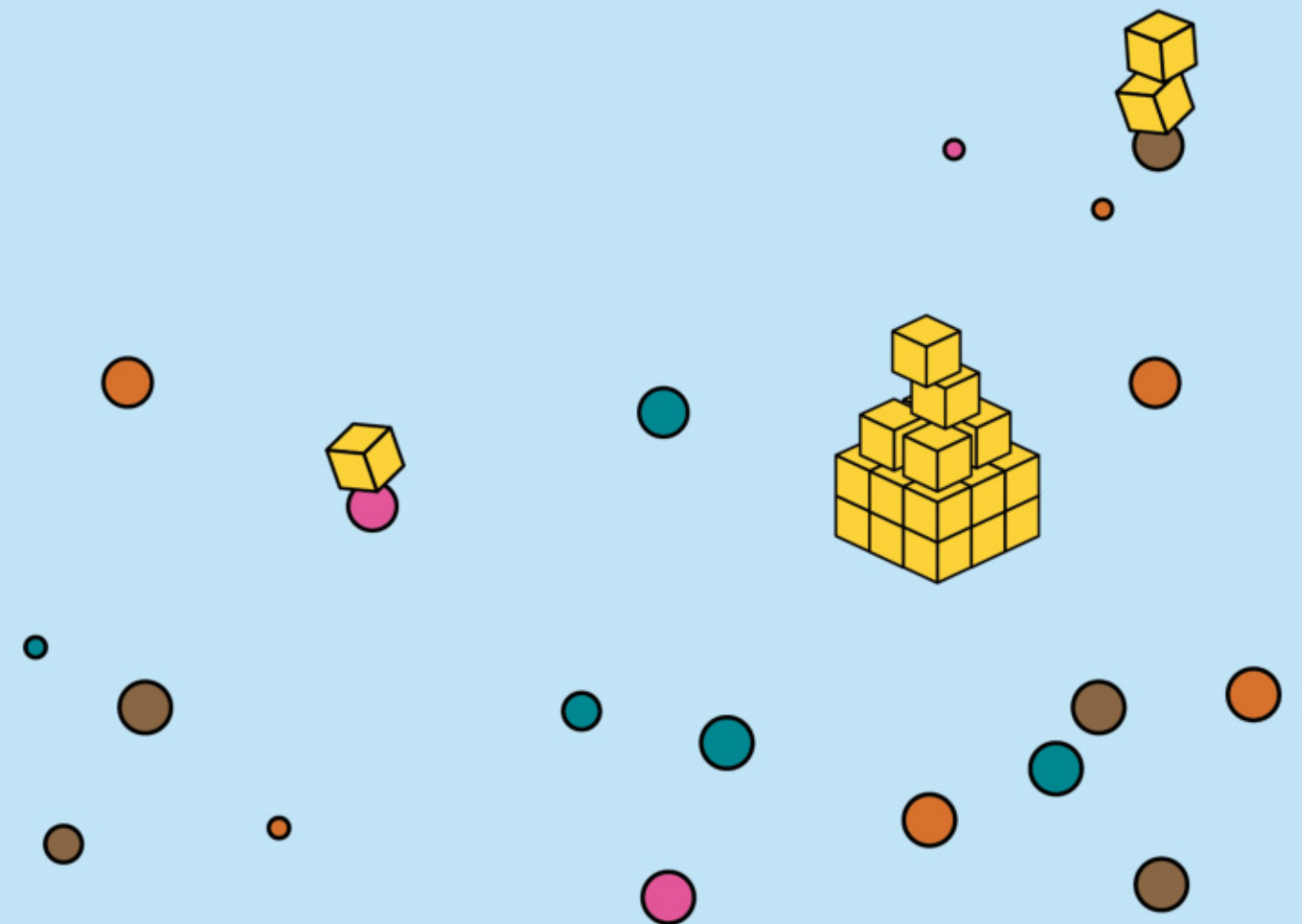


2019년
마당예술동아리 활동과정
보러가기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 '미추홀수다'

1) 지역의 이야기를 담다

- 주안6동 '닐리리야' : 동양장사거리와 함께한 중년 여성의 삶
- 용현5동 '캡틴걸스' : 이제 용현5동이 내 고향이에요
- 학익2동 '불타는 모난돌' : '미추홀캐슬' 대신 '행복한 미추홀'
- 용현2동 '옹마루사람들' : 미추홀과 함께한 옹마루



주안6동 마당예술동아리 '닐리리아' 동양장사거리와 함께한 중년 여성의 삶



작 품 명 비, 그리고 동양장사거리

장 르 연극

작품내용 동양장사거리(주안8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여인이 있다.
오늘은 딸이 출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비가 오기 시작한다.
비 오는 동양장사거리의 추억을 돌아보니, 이 장소의 변화와 나의 세월이
함께 녹아있음을 유난히 느끼는 어느 날의 단상.

마당지기 최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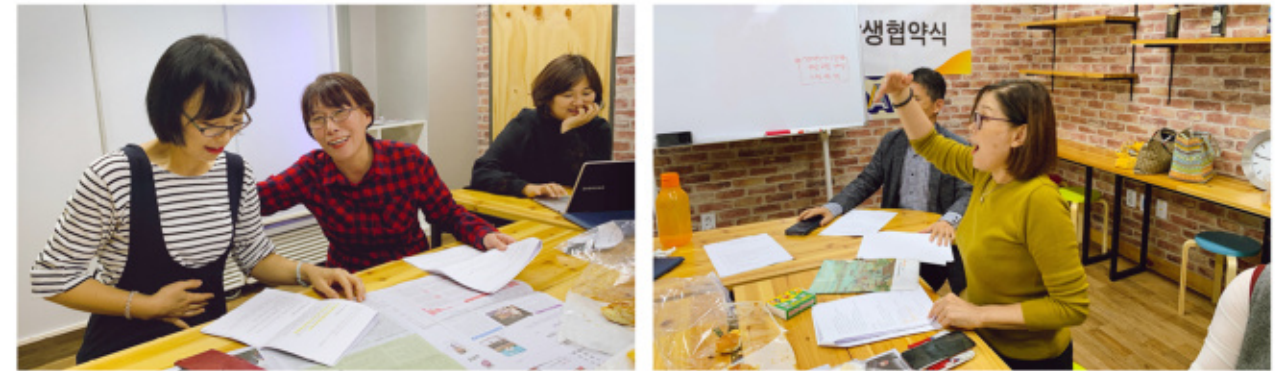
참여인원 김찬주, 김수자, 오세익, 한경진 (총 5명)

참여강사 김은미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2019년 12월 23일 (용현1,4동 마을발표 초청공연)

중년들의 유쾌한 모임

〈닐리리아〉의 동아리원은 다섯 명으로, 전체 동아리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다. 하지만 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총량은 결코 다른 동아리에게 뒤지지 않는다. 〈닐리리아〉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닌지, 경쾌한 선율의 민요를 부르듯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웃음소리와 한데 뒤섞여 연습실을 채운다. 연극 연습을 하는 중에도 실 새 없이 농담과 장난이 오간다. 그러다가도 순식간에 진지한 자세로 돌변하여 목에 핏대를 세우고 대사를 읽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동아리원들의 진짜 모습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두 시간 내내 몸을 움직이며 연습을 했는데 동아리원들은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연습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여전히 기운 넘친다. 게다가 입담들은 또 어찌나 좋은지,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녀들의 유쾌한 수다!” 같은 TV쇼 제목이 떠오른다. 〈닐리리아〉에게는 ‘중년들의 유쾌한 모임’이라는 타이틀이 제격이다.



대본 리딩을 할 때도 실전처럼 열심히 하는 〈닐리리아〉.

비, 여자, 동양장사거리

이렇듯 중년들의 모임, 특히 중년 여성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보니 이야기의 주제 역시 자연스레 중년 여성의 삶으로 좁혀졌다. 또한 한 여성의 삶을 물(水)과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김은미 강사의 관점이었다. 인간이 탄생하기 전 난자와 정자의 형태로 결합하는 공간에 물이 있고 생명의 잉태와 출산 역시 물과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의 이미지와 여성의 삶을 결합하기로 했고, 그 다음 동아리원들이 겪었던 물과 관련된 경험을 모았다. 그러던 중 인천 토박이인 김수자 동아리원이 동양장사거리라는 소재를 던진 것이다.

승기사거리의 옛 명칭인 동양장사거리는 인천에서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곳으로, 비와 동양장사거리의 관계는 지독한 악연과도 같다. 하지만 동시에 산부인과 동네로 유명해서 누군가에게는 출산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물, 출산, 여성이

라는 주제를 포괄하기에 알맞은 소재로 동양장사거리만 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동양장사거리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여자가 되고 아이를 낳는 주인공 여울이의 모습으로 여성의 삶을 표상했다. 여울이의 경험은 동아리원들의 실제 이야기다.

〈닐리리아〉 팀은 '비, 그리고 동양장사거리'가 재미와 감성이 어우러진 연극이라고 자평한다. 비 오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 들어온 그때 그 시절의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화하는 고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씁쓸함을 담아냈다. 비가 올 때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과거를 추억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장소는 아파트와 센터에 밀려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중년 여성은 이제 할머니가 되고, 삶은 그렇게 계속 살아질 것이다.

새로운 시도 - 인형극

올해로 3년째인 〈닐리리아〉의 공연은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제작년에는 의자를 배치한 채로 가면을 활용한 연극을 선보였다. 작년에는 대사 하나하나가 길다 보니 마치 셰익스피어 연극 처럼 두 사람이 가만히 서서 연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형극을 시도했다. 어린 여울이를 인형으로 대체한 것인데, 어린아이 역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가 분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은미 강사는 동아리원들이 저 먼 곳의 아련한 기억을 끌어오게 만들려면 인형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다. 동아리원들은 인형을 직접 만들고 인형 조작방법까지 배웠다. 인형극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인형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4주나 소요됐다. 관절을 하나씩 만들고 본뜨는 과정을 거쳤다. 덕분에 인형에 애정이 생겨서 모두들 연습 내내 마치 자식을 대하듯 인형을 챙겼다. 김은미 강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동아리원들이 인형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까지도 마친 것이라고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3년 차인 〈닐리리아〉 팀의 연기력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동아리의 일원으로서도, 연기를 배우는 개인으로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닐리리아〉의 동아리원들이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를 보여 줄지 기대된다.

연기를 향한 열정

다섯 명의 동아리원이 십여 분간 무대를 꽉 채우려니 부담이 될 법도 하다. 그러나 이런 염려도 〈닐리리아〉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들의 최대 강점이 바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김은미 강사가 말하기를, 동아리원들의 연기는 시민 연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닐리리아〉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들을 만나는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대본 리딩을 할 때에도 실전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이 그 열정을 증명한다. 동아리원들에게 〈닐리리아〉활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토록 열렬한 것일까? 세 명의 동아리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꽃분이의 이야기

올해부터 〈닐리리아〉에 합류한 꽃분이(한경진)의 어린 시절 꿈은 탤런트였다. 중학교 때 친구에게 이 말을 했다가, 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화면이 꼭 차겠다는 면박만 받고 끝났다. 고등학생 때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연극부에 지원했으나 떨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인생에 연극이니 연기니 하는 것들은 없을 거라고 단념했다.

그러다 마음이 힘든 시기에 우연히 〈닐리리아〉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무엇이랄지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에 지원했다. 이번에는 드디어 연극 동아리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공연에서 이만큼이나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몰랐다.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첫 연기라서 서둘 수 있다는 핑계에 기대기에는 다른 언니들의 실력이 상당했고, 그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 스스로 연기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고 용기가 생겼다. 이제 꽃분이는 언니들과 즐겁게 연습하는 매주 금요일을 기다린다. 그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된 것이다. 다음부터는 대사가 적은 역할을 맡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둘 호락호락한 언니들 같지는 않다.

파랑새의 이야기

파랑새(김수자)도 꽃분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닐리리아>를 찾아왔다. 사실 그에게 연극이라는 예술 장르는 생소했다. 전문 분야는 춤이고, 연극보다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우연처럼 <닐리리아> 모집 공고를 마주친 그 순간이 이제는 필연이 되었다.

올해 들어 유독 춤추는 게 힘들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을 받은 파랑새는 자신을 붙들어 줄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다. 유독 자신을 이끄는 이 모임에 합류한 첫날, 타임캡슐을 작성하기 위해 색연필과 도화지를 들자 그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색연필을 가지고 고적거린 게 대체 얼마 만인가!' 그때부터 파랑새에게 연극 모임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김은미 강사의 모습에 자존감이 올라갔고, 인천에 살면서 쌓은 이런 저런 지식과 추억이 작품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이제는 연극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깨달았다. 아니, 연극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안에서 연극적인 요소를 찾기 위해 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자신이 신기하다고 한다. 파랑새의 포부는 남다르다.

"내년에 어떤 작품을 하든, 어떤 역할이 오든, 뭐든지 내 스타일로 꼭꼭 씹어 주겠어."

놀래 사상 가장 파격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을까 기대가 된다.

연극소녀의 이야기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 여율이 역을 맡은 연극소녀(김찬주)는 간절하게 연극을 꿈꿔 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역을 꿈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혼자 대본을 쓴 다음 친구들을 모아 놓고 배역을 나눠 줬다. 그리고 교회 성탄예배에서 연극을 했다. 할 때마다 어른들에게 칭찬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3년을 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다 보니 꿈을 좇기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닐리리아> 모집 공고를 발견하고 바로 지원을 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 상단을 차지하고 있던 연극배우의 꿈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연극소녀는 연극을 할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 단조로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연극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다. 연기할 때는 소리치고 감정을 토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면 자신이 마치 김태희가 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연극소녀에게 올해의 소감을 묻자 연습량 부족에다가 무대 위에서는 감정에만 심취해서 연기했다는 한없는 후회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김은미 강사는 오히려 그의 연기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말한다. 스스로에게 냉정한 태도가 발전의 원동력인 것 아닐까?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제발 일 년만 하고 그만두지 말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연극소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용현5동 마당예술동아리 '캡틴걸스' 이제 용현5동이 내 고향이에요



작 품 명 살만해! 용현5동

장 르 연극

작품내용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치열하게 살다 보니 지금은 용현5동이 고향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다. 토박이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고향이라, 동네를 술술 이야기해본다. 낙성, 토지금고 지금의 이야기까지! 용현5동 살만해!

마당지기 류회국

참여인원 김경옥, 김민정, 김선영, 김은정, 이해자, 전부일, 장순남, 최은실 (총 9명)

참여강사 이도위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살다 보니 용현5동



첫 대본 리딩하는 <캡틴걸스>



살고 있는 동네의 유래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 토박이들도 잘 모르는 사실을 타지에서 와 터를 잡은 사람들이 알기란 더욱 쉽지 않다. 대부분이 용현동 토박이가 아닌 <캡틴걸스> 동아리원들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열리는 낙섬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낙섬의 원래 이름이 원도(猿島)이며 원숭이를 닮은 섬 모양 때문에 원도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생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마다의 조건에 맞춰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마을 이름의 유래나 역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으리라. 광주, 부산, 강원도,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아리원들은 시집오면서 남편을 따라 온 경우가 많고, 김경옥 동아리원은 자녀가 인하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들을 따라 거주지를 옮겼다. 산 햇수는 얼마나 다양한지, 토박이부터 30년 차, 3년 차까지 제각각이다. 하지만 타지에서 왔다고 해도 정붙이고 사는 이곳이 내 마을이고 내 고향이지 않나. 그래서 <캡틴걸스>는 용현5동을 고향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봤다. 젊은 시절 먹고살기 위해 용현5동에 정착했다가 이제는 살 만해진 사람들이 마을을 조금씩 알아 가자는 이야기다.

'마을 프로젝트 - 우리 동네 알아가기'라는 이름을 달고 동아리원들은 마을 공부를 시작했다. 앞서 말한 낙섬이 원도이고, 원도사제는 그 옛날 고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던 제사라는 것도 처음 배웠다. 독쟁이 고개와 토지금고 이름의 유래도 알게 됐다. 타 지역에서 아구라고 불리는 물텀병은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정작 그 뜻은 몰랐는데, 못생긴 이 생선을 바다에 버리면 텀텀텀텀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물텀병이 됐다는 정겨운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공부 덕분에 장순남 동아리원은 남편 앞에서 우쭐해질 수 있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있다가 우연히 원도사제에 대한 글을 읽었다고 한다. 남편이 원도사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자 그는 자신보다 용현동에서 더 오래 산 남편에게 오히려 원도의 뜻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제는 토박이보다도 용현동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살만한 용현5동

연극 주제를 정할 때에는 단지 마을을 공부하는 것 뿐 아니라 용현5동에 살면서 느낀 좋은 점, 좋은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 나누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도위 강사가 생각하는 용현5동은 도심지와 달리 여전히 작은 동네의 따스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음식을 싸 와서 서로 나누는 모습만 봐도 이웃 간의 정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캡틴걸스> 동아리원들에게 마을의 좋은 점을 문자 이야기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용현5동이 너무너무 좋다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결혼하면서 연안부두에서 용현5동으로 온 최은실 동아리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애꿎을 때가 바로 아이가 아플 때인데, 용현5동에는 인하대학교병원의 응급실이 있고 늦은 시각까지 영업하는 소아과도 있다. 심지어는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아이가 자주 아픈 편이기 때문에 근처에 병원이 많은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공터를 보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상점이 생긴다. 김선영 동아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 편해지는 용현5동을 보며, 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고 설렌다.

교통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한다. 전철이 뚫리면서 서울과 같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해졌고, 특히나 술 생각 간절할 날에는 오이도에 가서 해산물에 소주 한잔하기 딱 좋다. 수인선의 새 구간이 개통되면 이제 수원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여 있는 좋은 교육 환경과 물건 값이 저렴한 토지금고시장까지 전부 용현5동의 자랑이다. 입을 열면 마을 자랑이 술술 나오는 이들에게는 이제 이곳이 고향인 게 분명해 보인다.

동아리 속의 동아리: 마술 교실

<캡틴걸스>의 캡틴은 마당지기 류회국 동아리원이다. 새로운 동아리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아리의 청일점이었기 때문에 캡틴이 됐다. 캡틴의 또 다른 이름은 마술사로, 실제로 무대에서 멋진 쇼를 선보이는 프로 마술사다. 캡틴은 대사를 적게 하는 대신 자신의 특기인 마술을 연극에 활용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덕분에 관객들은 연극과 함께하는 깜짝 마술 쇼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마술 쇼가 무대 위에서만 있던 것은 아니다. <캡틴걸스> 팀은 종종 연극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주민센터에 모인다. 모든 동아리원이 일찍 도착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맞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센터에 모여서 책상에 웅기증이 돌려앉는다. 캡틴이 알려 주는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티슈 같은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쉬운 마술이지만 이 시간은 본격적인 연극 모임을 가지기 전에 동아리원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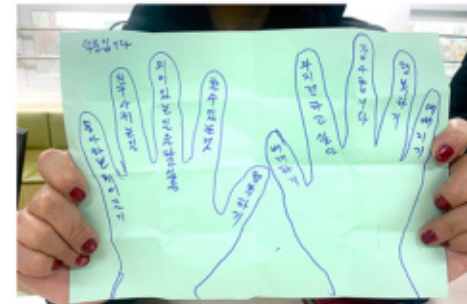
〈캡틴걸스〉를 통한 변화

〈캡틴걸스〉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 유독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친구를 사귄 수도 있고 동생을 만들 수도 있으며 언니, 오빠, 형이 생길 수도 있다.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인상을 준다. 동아리원들이 말하기를 모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 사이가 좋은 거란다.

그래서일까? 동아리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연극 모임을 시작하면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놀랍게도, 말도 많고 웃음도 많은 동아리원들 중 몇몇은 처음 이곳을 찾을 때만 해도 슬픔을 얼굴에 달고 있었다는 거다. 지금의 밝은 모습을 보면 당시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니 진짜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라고 외치는 동아리원들로 보아 그 말이 사실인 듯하다. 이들이 〈캡틴걸스〉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들어 보았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는 다들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학산마당예술'놀래'의 초청 공연 YOLO팀의 뮤지컬을 관람하면서 깊이 감동한 김경옥 동아리원은 간단한 춤을 섞은 뮤지컬을 배워 보고 싶다고 했고, 김선영 동아리원은 난타나 드럼처럼 두드리고 움직이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싹쓸 풀고 싶다고 전했다. 전부일 동아리원은 스피치를 배우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최은실 동아리원은 연극을 배우고 싶어서 〈캡틴걸스〉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연극만 하고 싶다고, 다만 다양한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말했다. 에너지가 넘치는 〈캡틴걸스〉 동아리원들을 보면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김선영 동아리원



“타임캡슐에 썼던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주변 상황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들른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동아리 모집 공고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캡틴걸스〉에 가입하면서 드디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면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쏟아 보니 닫혀 있던 마음이 점점 열린 것 같아요. 묵혀 있던 감정도 전부 토해 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점점 외출 횟수를 늘리고, 외면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죠. 이제는 원래의 성격을 완전히 되찾아서 친구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표정이 밝아져서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장순남 동아리원



“용현5동으로 이사 와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캡틴걸스〉 모집 공고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 친해졌어요. 이제 좋은 동네 친구들이 생긴 거죠. 저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절에 공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했지만, 나이를 먹은 후에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추억 하나를 얻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김민정 동아리원



“저는 올해로 2년 차인데 작년에도 물론 좋았지만 올해 더 좋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을 새로 모집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많은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무대에 오를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학익2동 마당예술동아리 '불타는 모난돌' '미추홀캐슬' 대신 '행복한 미추홀'



작 품 명 新 별주부전 : 미추홀 캐슬

장 르 연극

작품내용 좋은 교육 환경을 쫓아 육지로 떠나가는 바다 생물들.

보다 못한 용왕은 육지에서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 '토선생'을 모셔와
바다 학교의 교육을 살리라 명한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 '자라 대신'.
그와 바다학교의 운명은?

마당지기 조경희-이준호

참여인원 강정혜-방유현, 방유건, 남수정-최형찬, 윤미영-유채린, 유단희,
조미희-장호형, 장은호, 하다라다에코-김관영 (총 15명)

참여감사 오연주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2019년 12월 28일 (학익2동 마을발표 공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바다 나라 교육 비상!",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모두 육지로 떠났어요.", "엄마랑 아빠가
여기에선 공부를 잘할 수 없대요." 바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 육지의 좋은 교육 환경을 선망
하여 바다를 떠나는 바다 주민들 때문이다. 남아 있는 주민들은 올상 짓고, 백성을 잃게 생긴 용왕
님과 대신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육지에서 이름난, 스카이캐슬 쓰앵님 뽀치는 SKY대학 합
격률을 자랑하는 토끼 선생을 찾아 바다로 모시기 위해 자라 대신이 출동한다.

연극 속 장면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 미추홀구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려면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연수구로 이사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라고 한다. 강남 8학
군만큼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미추홀구 사람들도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합격시키기 위해 정든 동
네를 떠나고 있었다. 학익동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불타는 모난돌> 동아리원들이 엄마로서 가지
는 고민 중 하나 역시 교육이다. 당장은 아이에게 공부를 덜 시키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
려둔다는 동아리원도, 아이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교
육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과 올해의 주제인 물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섞은 결과 <新 별주부전 - 미
추홀캐슬>이 탄생했다.

다시 연극 속으로 가 보자. 자라 대신은 여정 끝에 토끼 선생을 만났다. 하지만 행복은 뒷전인 채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육지 동물과 입시 결과만을 중시하는 토끼 선생을 보고 깨닫는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끼 선생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바다 나라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엄마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마당지기 조경희 동아
리원은 요즘 아이들이 안쓰럽다고 말한다.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교육혜택을 받지
만, 그만큼 무엇이든 잘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엄마들은 미추홀구의
교육이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다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각자의 재능을 길러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다 나라 대신들의 입을 통해 전달했다.

아이들이 주인공

그리고 이런 바람은 엄마들의 노력 덕분에 이미 실현되고 있는지 모른다. 엄마를 따라서
몇 해째 연극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배역을 결정한다. 가장 대사가 많
은 자라대신 역은 무려 세 명의 아이들이 탔다. 다들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다. 결국 가위바위
보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주인공을 결정했다. 단지 호랑이 옷이 좋아서 호랑이 역을 선택했다는
귀여운 이유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배역을 찾아가다 보니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새
아이들이 주인공인 연극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연습 도중 자유롭게 말하는 애드리브가 대본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 성질 나쁜 용왕님이 생선을 집어던지는 모습은 배역을 맡은 유건이가 만들었다. 또한 아이들은 연극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기도 했다. 토끼 선생 역의 준호는 쓰앵님이 되기 위해 드라마 스카이크슬을 전편 보며 참고했고, 자라대신 역의 형찬이는 많은 대사를 외울 때까지 대본을 반복해서 읽어야만 했다.

오연주 강사가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이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자 공부가 되었다. 한 번은 물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엄마와 아이 모두 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바닷길로 그려 보았다. 바다 생물의 움직임을 따라 하기도 했는데, 오징어를 흉내 내느라 꿀렁꿀렁 움직이던 유현이의 배는 보는 사람을 즐겁게 했으나 본인에게는 흑역사로 남은 듯하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연극을 만들어 가는 과정만으로 좋은 교육이 된다.

숨은 주인공은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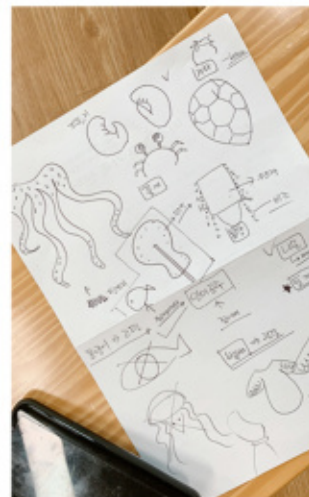
무대 위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지만, 사실 연극이 만들어지기까지 가장 노력한 사람들은 바로 엄마들이다. 마을, 교육, 물 등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인 연극 내용이 결정됐다. 오연주 강사가 열개를 짜면 하나하나의 대사는 엄마들이 집어넣었다. 연극의 마지막 대사 역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하나?',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엄마들의 답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특히 엄마들은 이번 연극을 위해 솜씨를 심분 발휘했다. 별주부전을 활용하게 된 것은 좋지만, 등장인물이 문어나 꽃게와 같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관객에게 알려려면 소품이 필요했다. 많은 양의 소품을 전부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엄마들은 하나씩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자라의 등껍질, 뱀새의 날개 등 만들기 까다로운 것부터 대신들의 부채처럼 무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소품까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다른 동아리들이 눈을 떼지 못한 화려한 동물 옷 세트가 완성된 것이다. 엄마들의 정성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게다가 연습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자극까지 추가했다. 조명의 위치가 딱 맞아떨어져야지만 관객에게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마지막까지 신경을 바짝 세워야만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무대 위에서 근사한 그림자극이 펼쳐질 수 있었다. <불타는 모난돌>의 숨은 주인공은 단연코 엄마들이다.

함께 성장하는 <불타는 모난돌>

남수정 동아리원이 주변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미추홀구에는 문화 활동을 할 곳이 많아서 좋다는 말이다. 연극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해, 가족센터, 평생학습관,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다. <불타는 모난돌> 동아리



엄마들이 직접 그린 소품 도안

원들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 새로운 문화 활동을 배워 왔다. 평생학습관에서 아이들은 역사와 바둑 수업을 받았고, 엄마들은 양궁과 같은 운동 수업을 받았다. 어머니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그리고 그중 <불타는 모난돌> 동아리 모임을 가지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어 준다. 처음 동아리원들이 이곳에서 함께하게 된 계기는 품앗이였다. 세 가정 이상이 모여 엄마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 학습을 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어 교실, 요리 교실, 영상 제작 교실이 열렸다. 그러다가 엄마들과 아이들이 모이면서 연극 동아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실컷 뛰어다니고 소리쳐도 누구에게도 눈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물론 길에서조차 마음대로 시끄럽게 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엄마도 아이가 뛰어노는 걸 제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마피아 게임, 야구, 농구를 하며 즐거워한다. 사실 엄마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일어나서 달리고 부딪혀야 하는 게임이 달갑지 않았지만 한두 번 하다 보니 재미있어졌고, 이제는 승리에 욕심내는 진지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엄마들은 이곳에 모이면서 아이들이 시끄러워도 인내하는 마음을 길러주며 아이들을 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반면에 아이들도 배운 점이 있다. 처음 게임을 할 때에는 규칙을 잘 몰랐고, 지는 행위에 적응하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 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게임할 때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처럼 <불타는 모난돌> 모임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준다.

아이들의 한마디 들어 보기

놀래의 '최연소' 참가자들이 모인 <불타는 모난돌>에는 인생의 절반을 놀래와 함께 보낸 동아리원도 있다. 처음에는 너무 어린 나머지 무대에 올랐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사라져 버리는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자기 대사를 챙길 줄 안다. 무대 경력이 벌써 5년 차라는 아이들은 누가 물어볼 때에는 무대에 서는 게 하나도 떨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엄마들의 말은 조금 다르다. 엄청 떨면서도, 공연을 해내는 성취감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연극 모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 보자.



여기까지 오는 게 멀지만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노는 게 좋으니까요. 내년에 중학생이 되어도 할 거예요.

축약사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인어공주 여장이 참되하
지만 재밌었어요. 다음
에는 주인공 할 거예요!

3년 차라 하나도, 아니,
약간 떨렸어요. 친구들과랑
노는 게 엄청 재밌어요

좋았어요. 실수를
안 해서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주인공 안
할래요. 대사가
너무 많아요...

..... (속스러워서
말하지 못 하는)
"재미있었어?"
[끄덕끄덕]

용현2동 마당예술동아리 '용마루사람들' 미추홀과 함께한 용마루



작 품 명 우리 동네가 왜 용마루야?

장 르 영상극

작품내용 '우리 마을 알아보기' 숙제를 해야 하는 학생들.

"우리 마을에 기차가 다녔다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구 터미널이 어디야?"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용현2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상상해 본다.

마당지기 엄정산

참여인원 김채연, 박성하, 박화예, 이민재 (총 5명)

참여강사 박재현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미추홀과 함께 한 용현2동

과거 용현2동은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시작점이었으며, 송도로 가는 해안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모두 용현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뿐인가 예전엔 인천버스터미널도 있었고 소금을 실어 나르던 수인선 열차도 이곳 용현동을 거쳐 갔다. 아직도 수인선의 흔적이 동네 곳곳에 남아있다. 주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때는 동네에 인구도 많고 장사도 잘됐었다고 한다. 이 후 연수구, 서구 등 새로운 지역의 개발에 따라 구도심으로 전략해 가는 미추홀구와 함께 동네도 쇠퇴해가고 있었다. 열차는 멈추고, 터미널은 이전을 했다. 이러한 용현2동이 지난 몇 년 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인선이 재개통되며 송의역이 생겼고, LH미추홀 아파트가 3단지까지 들어왔다. 덕분에 동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동네의 이런 변화과정을 기록해 놓기 위해 용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학산문화원이 머리를 맞대었다.



경인고속도로 기공식



남인천역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미추홀구 토지금고마을박물관 내 보유 자료 촬영본

용마루 레디액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동네가 흰해지고 있지만, 용현2동의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지난 7월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첫 삽은 떴지만 완공까지는 1년여가 남았다. 마당예술동아리는 미추홀구의 각 동을 기반으로 조직이 된다. 몇 년 간 활동을 이어오는 동아리들도 있는 반면 용현2동은 그 반대다. 지난 몇 년간 동아리 활동이나 대외적인 구의 행사들에 참여가 주춤했다. 재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기도 했고 행정복지센터가 건물에 세 들어 있다 보니 동아리들이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재개발이 확정된 후 사람들은 떠나가고 빈집만 남아있을 당시, 학산문화원과 용현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심하여 마을영화를 찍었다.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자랐던 두 친구가 재개발로 인해 이별을 하고, 이웃도 떠나보내는 가는 이와 남은 이의 아쉬움을 담아낸 영화였다. 조금 어설프지만 마을 주민들이 배우로 나서기도 하고 장소섭외, 소품준비 등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영화였다. 그로부터 5년 후 영화를 찍던 자리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구도심이 변하는데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전하는 용마루 이야기



6학년 채연이와 성하는 용현초등학교 방송부 부원이다. 채연이는 방송부 언니, 오빠 등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흥미가 생겨 가입을 결심했고, 성하는 PD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입 신청서에 써서 냈다. 두 사람 모두 공부하랴 학원 가랴 바쁜 와중에도 학교 행사 때마다 교내 방송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방송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런 채연이와 성하가 용현2동 영상극에 함께하게 되었다. 용현2동의 자치위원회와 마을 주민들이 전하는 과거-현재-미래의 용현2동을 단순히 말로 서술하기보다 동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나고 자랐지만 동네를 잘 알지는 못하는 아이들이 용현2동에 대해 하나씩 배우는 것처럼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도 용현2동을 새롭게 알아 갈 수 있을 테다. 용현초등학교 방송부와 연계하여 방송부 아이들이 내레이터 역할을 맡기로 했다. 채연이와 성하는 또래 아이들답게 처음 접하는 이러한 활동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주저 없이 지원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어른들이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들의 말에 맞는 대본을 완성하는 작업은 눈만 마주치면 아웅다웅하는 채연이와 성하를 몇 시간이고 머리를 맞대게 만들었다. 대사가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 또 반복한 건 당연하다. 두 사람이 차분히 호흡을 맞추는 것도 연습 끝에 성공했다. 덕분에 무대 위에서는 숙제에 성실히 임하는 모범생을 연기한 두 사람이 실제로는 실 새 없이 조잘조잘 떠드는 열세 살 장난꾸러기들이라는 사실이 관객들에게 비밀로 남았다. '우리 동네가 왜 용마루야?'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채연이와 성하가 하나씩 공부한 용현2동의 모습은 다채롭다. 용마루, 수인선, 경인고속도로, 토지금고 등 과거의 용현2동은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신선했다. 채연이는 토지금고가 그저 시장 이름인 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들어만 봤던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 갈수록 아이들은 연기가 아닌 실제로도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자신을 나이일 때의 일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특히나 즐거웠다. 또래 친구들은 모르기 십상인 여러 가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채연이와 성하. 또한 머지않아 새로운 아파트 단지, 넓은 공원과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 용현2동의

미래 역시 기대된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채연이와 성하도 나름대로 용현2동의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어른들의 바람보다는 훨씬 소박하지만 말이다. 우리 동네의 좋은 점으로 제일 먼저 먹자 골목을 꼽은 성하는 앞으로 동네에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동네 맛집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다. 먹성 좋은 열세 살 남자아이다운 바람이다.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답변을 들려준 채연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학교의 학생들이 많아지고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말했다.

이제 곧 중학생이 되어 바빠질 두 사람은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학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연장선이 된 용현2동의 영상극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었다. 방송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전문 프로듀서를 만나고 전문 장비를 사용했다. 방송 부에도 녹음 장비가 있지만 그렇게 큰 마이크는 처음 사용해 봤다며 신나게 말하는 채연이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마을에 대해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채연이와 성하가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우리 동네가 왜 옴마루야?'를 풀어내 준 덕분에 관객들 역시 용현2동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미추홀구청에 가서 나레이션 녹음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의 중인 강사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마을박물관 주민큐레이터분께 자세한 설명 듣기



동네에서 오래동안 장사를 해 오신 경기전자 사장님



박화에 통장님은 동네를 함께 걸으며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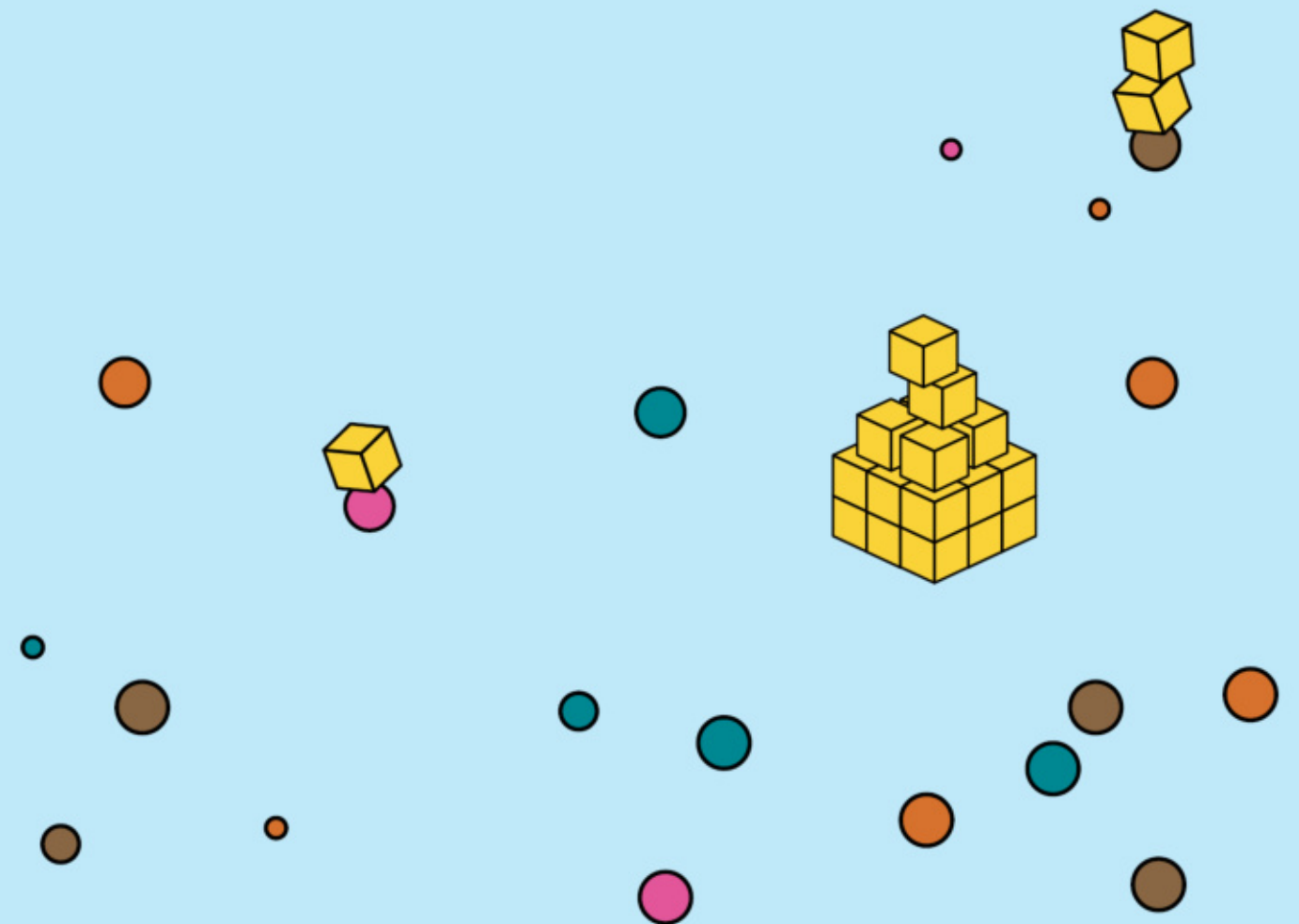


우리 동네를 한 눈에 보기 위해 드론도 날려봐요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 미추홀수다

2) 공동체와 마당예술동아리

- 도화2.3동 '어수선' : 무궁무진한 어수선의 변신
- 용현1.4동 '한결' : 용띠들이 용현동에 모였다!
- 송의1.3동 '글보다 꽃할매' : 오랜 벼들이 읊는 인생의 시
- 학익1동 '학나래두드림' : 엮어져도 뒤집혀도 학나래두드림



도화2.3동 마당예술동아리 '어수선' 무궁무진한 어수선의 변신



작 품 명 또! 환경계엄령 - 공수대첩

장 르 연극

작품내용 또! 비상계엄령이다. 가뭄에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안일하게 받아들인다.

하나 환경재앙은 멈출 줄 모르고 인간은 뒤늦게 노력해 보지만 소용없다.

환경에 적응한 미래 가족의 명절날의 모습과 추억여행.

할머니의 소원을 위해 손주들의 물을 찾는 동네탐험이 시작된다

마당지기 조현경

참여인원 김태은, 김명순, 김행화, 노순선, 박준영, 박지우, 박현옥, 조은영, 조형란 (총 10명)

참여강사 오지나

공 연 일 2019년 10월 12일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 한마음 축제 초청공연)

2019년 10월 22일 (제4회 인천시민연극제 참가)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구연동화 수강생에서 무대 위의 배우로

〈어수선〉 팀은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모범 사례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문화의 주체적인 생산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 첫 시작은 구연동화였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이 모여 동아리원을 모집하고 구연동화 강좌를 들었다. 구연동화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마지막 과정인 아동극 발표까지 마치고 보니, 자격증만 따고 말기에는 열심히 외운 대사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학교 공연이나 좀 해 보자는 심정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남아 동극 동아리를 시작했다. 때마침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인 동아리원이 있어서 학교와 연결하기가 수월했다. 초등학교 시청각실을 무대 삼아 저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동극 공연을 선보였고,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쿨도서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한번 공연을 하니 동아리원들 역시 계속 무대에 서고 싶었고, 유치원에서도 여러 번 공연을 하며 꽤 많은 경험을 쌓았다.

동아리원들은 연극을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대사를 전달하는 방식, 무대 위의 움직임 등 연극 표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절묘한 타이밍에 학산문화원에서 연극동아리 제의가 들어왔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 진 것처럼 연극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이다. 이름은 〈어수선〉이라고 붙였다. '어질고 수려하고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동극을 해서 일까 어수선 동아리원들이 모인 자리는 유쾌하고 시끌벅적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수선'한 모임이었다. 연극 모임에서는 이전까지와 달리 동아리원들의 주변 이야기나 지역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많았다. 그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졌다.

물론 구연동화 수강생에서 시작하여 연극 무대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마냥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살림, 육아 등 각자의 생활과 병행해야 하니 가끔은 연극 연습이 벅차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함께 떠드는 시간, 함께 무대를 만드는 기쁨이 이들을 멈출 수 없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 전하고 싶은 환경 이야기

올해 놀래에서 주민심사상과 작품상을 수상한 〈어수선〉에게 수상 소감을 물었더니 분위기가 한바탕 떠들썩해졌다. 중간에 실수가 없었다면 상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거나, 결과가 좋은 건 호수 위 소원 바위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작품상은 오지나 강사 덕분이며 시민상은 동아리원들 덕분이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동아리 이름 그대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어수선〉 팀이 좋은 무대를 보여 준 것이 100원짜리 동전 때문일 리는 없고, 실제로는 지난 가을에 시민연극제에 나가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민연극제에서도 놀래와 마

찬가지로 '또! 환경계엄령'을 공연했다. 그때의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연습을 반복했던 동아리원들이다. 하지만 15분가량의 공연으로 시민연극제에 나갈 수는 없었다. '또! 환경계엄령'이라는 제목으로 유추할 수 있듯 <어수선>은 작년에도 같은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었다. 두 작품을 하나로 이으면 40분이 넘는 호흡이 꽤 긴 작품이 탄생하는데, 시민연극제에서도 그렇게 무대를 만들었다.



2018 환경계엄령-대변재앙



2019 또!환경계엄령-공수대첩

그렇다면 '환경계엄령'은 왜 '또!' 만들어졌을까? 일 년 전 <어수선> 팀은 긴 시간 동안 연극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학교와 도서관, 그 외 마을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원들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상황을 즉흥극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어수선한 동아리원들이 자꾸만 강사에게 탄지를 놓는 거다. "강사님, 물은 나오나요?" "강사님, 전기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계속되는 동아리원들의 질문에 오지나 강사는 특급 조치를 내렸다. "몰라, 몰라! 계엄령이야!" 환경계엄령이라는 소재를 발견한 과정조차 참으로 '어수선'하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생활에 제약이 주어진다면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 동아리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질문에 답을 내렸다. 그렇게 환경계엄령 1탄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이미 속편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지나 강사는 <어수선> 팀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팀은 관객들이 문제의식을 환기할 만한 연극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팀이었다.

올해 주제인 '물'과 연결시켜 '또! 환경계엄령 - 공수대첩'이라는 연극을 만들었다. 작년에 했던 작품의 속편이라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또!'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이렌 소리 등 작년에 사용했던 장치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리고 1탄과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 역시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결말로 연극을 마무리했다. 환경은 이미 희망적인 단계를 지나쳤지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벌써 두 개의 이야기를 만든 <어수선>이 다음 무대에서 환경계엄령 3탄을 가지고 나타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관객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이들의 호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자녀들과 함께한 무대



또!환경계엄령 공연 모습 (좌)준영,(우)지우

이번 공연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 특별 출연자가 두 명 있다. <어수선> 동아리원들의 자녀 지우와 준영이다. 평소에 아이들은 엄마의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동아리 모임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가 올해는 극장에서 스낵을 파는 판매원이자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특히 지우는 첫 무대인 것치고 대담하게 애드리브까지 성공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노련미 넘치는 대배우'라고 장난스럽게 놀리지만 눈빛에서는 기특하게 여기는 티가 잔뜩 묻어났다. 두 특별 출연자는 엄마와 이모들이 무대 뒤 대기실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특별했다고 한다. 또 엄마와 무언가를 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동아리원들 역시 다 큰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같이 무대에 올라가 줘서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 <어수선>은 아이들 덕분에 풍성한 공연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의 <어수선>의 모습은?

공연을 무사히 마친 후, <어수선> 팀이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에도 올해만큼이나 멋진 연극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될 것 같다. 많은 동아리원들이 공연이 주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몇 년째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원들은 공연 준비를 하다가 힘이 들 때면 마음속으로 '올해까지만'을 외치지만 해가 바뀌면 마음을 고쳐먹고 북카페에 다시 얼굴을 비친다.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의 갈등만 거치고 나면 힘들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연극 준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는 동아리원들이다. <어수선>의 최고령 회원인 노순선 동아리원은 오래도록 꿈꿔 온 연극배우의 꿈을 실현해서 기쁘다는 남다른 감회를 밝히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이날의 논의가 내년에도 빠지지 말고 함께하자는 마당지기의 언약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아 이 팀의 '어수선' 분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듯하다.

또한 <어수선> 팀은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은 의지를 밝혔다. 시민연극제 참여 당시 '환경계엄령' 1탄과 2탄을 합친 하나의 작품을 무대 위에서 선보였듯 동아리원들이 많은 양의 대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그리고 <어수선>이 만드는 작품은 환경보호 등의 주제 의식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보일수록 그 의미가 되살아난다. 동아리원들은 자신들을 찾아 주는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한다.

게다가 손재주가 뛰어난 재주꾼들이 모여 있다는 것도 <어수선>의 놓칠 수 없는 강점이다. 연극을 단지 공연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희곡으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동아리원들과 오지나 강사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직접 삽화를 그리고 스토리를 쌓는 희곡 작가가 되어 보자는 것이다.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하지만 동아리원들은 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에서 내려오는 민간 설화 중 '이야기'라고 부를 수 없는 짙막한 토막 이야기를 찾아서 지역 설화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그 계획이다. 예컨대 동네마다 우물에 담긴 전설 한두 가지쯤은 있으니 소재가 떨어질 걱정은 없다. '환경계엄령' 역시 조금만 더 수정하면 충분히 아이들을 위한 희곡이 될 것이다. 구연동화 경험이 풍부한 동아리원들이 어린이 희곡을 만드는 모습은 어렵게 상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진다. 연극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어수선>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용현1.4동 마당예술동아리 '한결' 용띠들이 용현동에 모였다!



작 품 명 솟아라 솟아라, 맑은 물만 솟아라

장 르 풍물극

작품내용 동네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 풍물패가 마을에 맑은 물이 솟아나길 기원하며 우물제를 지내야 한다. 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우물신이 나타나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 과연 맑은 물이 솟을 수 있을까?

마당지기 김정순

참여인원 강영준, 김미숙, 김영자, 김정화, 김종분, 김훈자, 박종현, 신명복, 우인순, 이봉순, 최복숙 (총 12명)

참여강사 김정민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2019년 12월 23일 (용현1.4동 마을발표 공연)

용현1,4동을 수호하는 풍물단 <한결>

학산마당예술동아리의 터줏대감인 <한결>은 창단 10주년을 넘긴 장수 동아리다. 유난히 웅떠인 동아리원이 많아서 '웅떠들이 용현동에 모였다'는 말이 이 팀의 소개 멘트가 된 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다. 그리고 웅들이 모인 <한결>은 용현1,4동을 지키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거나 제사를 지낼 때면 꼭 참석하여 풍물을 치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공연 경험이 풍부해서인지 놀래 무대에 오르면서도 긴장하기보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준 <한결>은 5년 전부터 학산문화원과 함께하며 '마당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꽃길 만들기, 노인 고독사 등 다양한 지역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풍물놀이로 담아내는 작업은 오랫동안 풍물을 쳐 온 동아리원들에게도 새로운 시도였다. 게다가 풍물과 연기를 한 번에 연습하는 일이 결코 쉬운 리 없다. 심지어 올해의 공연 준비 기간은 김장을 담그는 시기와도 맞물려 동아리원들은 몸살까지 겪어야 했다. 이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결>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공연이 끝나면 언제나 뿌듯한 마음이 차오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벅찬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동아리원들이었다.

<한결>의 동아리원 대부분이 웅떠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공통점을 하나 더 찾다보면 다들 정년퇴직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풍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풍물이라는 취미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벌써 악기를 한두 개씩 칠 줄 아는 동아리원들이지만 더 배우려는 의욕은 끝이 없다. 내년에는 꼭 태평소를 배울 거라며 의지를 다지는 동아리원도 있었다. 동아리 모임을 가질 때는 웃고 떠드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려는 진지한 태도와 김정민 강사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집중력이 돋보이는 <한결> 팀이다. 오래 보고 지내서 그런지 별말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가 이들을 에워싸고 있다.

물론 <한결>이라고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지가 앞서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고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격한 동작은 다들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한결>은 젊은 동아리원들이 새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 <한결>이 조금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장수 동아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멤버 모집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아리원 모집에만 기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제 자신들의 악기를 하나 이상씩 다룰 줄 아는 동아리원들의 내년 목표는 모든 풍물 악기를 배우는 것이다. 지금은 한 명은 장구를, 한 명은 북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 즉 누군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면 공연에 지장이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아리원들이 모든 악기를 다룰 수만 있다면 어떤 이변이 생겨도 공연을 무사히 해낼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동아리 모임을 가지는 시간에 김정민 강사가 이러한 포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 동아리원들 역시 이미 결심한 일인 듯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다. 김정민 강사가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열심히 따르겠다고 말한다.

<한결>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펼친 <한결>은 언제나 작품 안에 지역 이슈를 담아냈다. 그런 <한결>이 이번에는 맑은 물이 솟기를 기원하는 '우물제'를 테마로 잡았다. 우물제는 우물에 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시에 풍물을 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결>에게 안정맞춤인 소재였다.

공연은 마을 주민들이 우물제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우물신이 나타나더니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입으로만 맑은 물을 염원하는 마을 주민들의 이중성을 나무란다. 개발을 앞세우느라 하천을 복개한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주민들도 우물신의 호통을 참자고 듣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역시 자연이 주는 재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맑은 물이 솟으라고 빌었더니 물난리 때문에 웬 흙탕물만 넘쳐흐른다는 마을 주민의 말은 동아리원이 직접 겪은 일화에서 비롯됐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하수구에서 물이 넘쳤기 때문에 걸레로 구멍을 죄다 막아 두어야만 했고, 어쩌다가 걸레가 빠져서 물이 넘치는 날에는 고생캐나 해야 했다. 이렇듯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지만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주민들과 우물신이 대립했다. 그렇지만 극 중 마을 이장이 말하는 것처럼 대립의 해결책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일 뿐이다. 동아리원들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살면서 자연재해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은 자연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흙탕물 때문에 고생했다는 동아리원도 지대가 낮은 곳에 물난리가 나는 것은 자연이 이치라는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 자연이 때로는 야속할지라도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역설한 후 자연과 화해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네의 하천이 복원되고 친수 공간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한결> 동아리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마당 예술을 만들기 위해

오래도록 풍물패로서 활동해 온 〈한결〉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할 뿐만 아니라 '종합 예술'에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태평소, 북, 장구, 징, 팽과리와 같이 풍물놀이의 기본이 되는 악기들을 흥겹게 연주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다음 풍물패가 두 줄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서 실수한 번 없이 완벽하게 해낸 상모돌리기가 풍물놀이의 화룡점정을 이룬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악적 요소를 하나 더 추가했다. 동아리원들이 다 함께 '여기여차 액이로구나' 하며 구성지게 액막이 타령을 불렀다. 실제로 고사를 지낸 후에 건강과 운을 기원하기 위해 부르다는 액막이 타령이 더해지니 우물제라는 상황이 관객들에게 실감 나게 전해진다.

그리고 음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연극이다. 〈한결〉은 놀래 공연에서 해마다 연극과 음악이 접목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는 '우물제'라는 전통을 이용하여 옛 풍물놀이의 방식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연극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했다. 옛 풍물놀이에는 신나는 음악 소리 말고도 풍자가 섞여 있었다. 고사 상 앞에서 비너리를 외우다가 결국은 인간의 잘못을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꾸짖는 우물신을 떠올리면 〈한결〉이 시도한 옛 풍물놀이 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연극을 하는 동안 한마디씩 넣는 추임새는 마치 판소리처럼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관객의 흥을 돋우었다.

동아리원들과 김정민 강사가 공연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한 가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 사물놀이가 듣는 것만으로도 흥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대 위에 가만히 서서 악기를 두드리면 놀이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어딘가 심심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원래는 악기를 치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등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동아리원들이 큰 동작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계속 서서 연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을 보완하고자 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화려한 진법(陣法)을 짜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진법을 연습하는 〈한결〉 동아리원들

'오방진'이 그렇다. 달팽이집을 만드는 복잡한 진법인 만큼 잠시 탄생각이라도 하면 앞사람을 놓치기 십상이라, 회원들은 이 헛갈리는 동선을 익힐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했다.

사실 동아리원들은 연극보다는 연주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풍물놀이가 좋아서 동아리를 시작한 것이라 많은 양의 대사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고 무대 위에서 한마디씩 보태다 보니 익살맞은 우물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이슈에 대한 동아리원들의 시선을 '종합 예술'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할 〈한결〉의 공연이 기대된다.

송의1.3동 마당예술동아리 '글보다 꽃할매' 오랜 벼들이 읊는 인생의 시



작 품 명 고추 말리는 할매 시인

장 르 연극

작품내용 한 사람의 손에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다.

한 평생 송의1.3동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시로 적어 내려가 본다.

정갈한 글씨 속에 묻어 나오는 인생살이를 들여다본다.

'35년 동안 고추말린 고마운 손, 우리 식구 한 평생 김치담가 먹인 고마운 손'

마당지기 장춘자

참여인원 박말순, 박순우, 박영순, 이종임 (총 5명)

참여강사 이도위, 인정선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오랜 벗들의 모임

〈글보다 꽃할매〉의 어르신들이 함께한 지 올해로 7년이 됐다. 한글학교에서 처음 만나 7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 모여 책을 읽고 한글공부를 한다. 오랜 시간 보고 지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막역한 사이다. 이분들의 관계를 '오랜 벗'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은 오래전에 나누었고, 지금은 그저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기 때문이다. 좋은 일, 즐거운 일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다. 게다가 힘들었던 일도 이제는 추억이 된 듯 유쾌하게 이야기 하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글보다 꽃할매〉 모임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무대 위에서 행복한 어르신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던 이유다.



동아리 모임은 소풍 가는 날

별 좋은 어느 가을 날, 〈글보다 꽃할매〉 모임은 특별히 근처의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거창한 이유는 없다. "날씨도 좋은데 소풍이나 가자"는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잔디 위에 돛자리를 깔자 어르신들은 익숙한 듯이 짐을 풀기 시작했다. 소풍이라고 해서 돌돌 만 김밥이나 먹기 좋게 잘린 과일 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다면 크나 큰 오산이다. 처음에는 동네 시장에서 산 도넛 한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에 파배기가 못해도 스무 개는 들었을 거다.



그래, 소풍인데 달달한 간식이 빠질 수 없지. 이만하면 소풍답다. 그런데 그 뒤로 줄줄이 나오는 음식들이 예사롭지 않다. 일 년 묵은 깻잎 장아찌, 고추 장아찌, 물김치 한 통, 동치미, 조미김 다섯 개, 삶은 고구마, 닭강정……. 화룡점정으로, 밥술을 그대로 들고 온 듯 거대한 공밥 한 통까지. 순식간에 한정식 상차림이 완성됐다. 보는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정작 음식을 싸 온 어르신들은 별일 아닌 양 반찬을 그릇에 덜기 바쁘셨다. 점잖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서로의 음식을 칭찬

하는 미덕은 잊지 않으셨고, 배가 불러 더는 못 먹겠다고 말씀드려도 끝까지 과일 한 쪽을 건네시는 모습은 푸근한 우리네 할머니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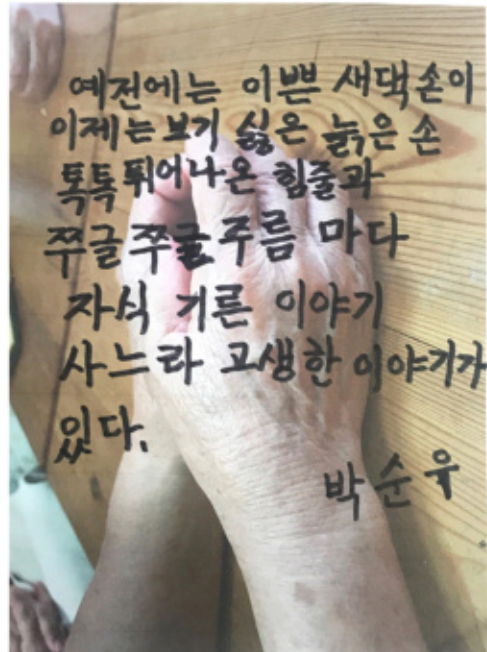
이런 소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반복된다. 〈글보다 꽃할매〉가 모임을 가지는 장소인 '그림책 사랑방'은 어르신들과 이도위 강사가 책상에 둘러앉지만 해도 딱 차는 아담한 곳이다. 그런 사랑방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긴다. 어느 날은 재료를 하나씩 가져와서 보리밥을 비벼 먹고 어느 날은 소박하게(?) 도토리묵을 만들어 와서 같이 먹는다. 한여름에는 그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오신 적도 있다. 무거운 짐을 메고 사랑방까지 오는 길이 힘들기는 해도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 동네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는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한 라디오 사연처럼 웃음을 준다. 이곳에서 못해도 48년 이상 지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미추홀구의 옛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 하나하나를 '고추 말리는 할매 시인'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좋은 재료가 되어 준다.

고추 말리는 할매 시인들의 〈고마운 내 손〉

처음 〈글보다 꽃할매〉 어르신들을 뵈던 날, 이도위 강사는 생소한 광경을 목격했다. 사랑방 앞 길바닥에 널려 있는 새빨간 고추들이 따가운 뽕약벌을 맞으며 예쁘게 말라 가고 있었다. 아직도 도심 한복판에서 고추를 말리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춧가루를 사 먹지 않고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고추를 말리다가 동아리 모임에 지각할 정도로 어르신들에게 고추 말리는 일은 중요한 과제였다. 왜 꼭 직접 만드셔야 하는지 여쭙면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맛있으니까" 사 먹는 건 맛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추를 말린 다음에는 역시나 자식들에게 나눠 준다.

그런데 고추 말리는 게 어디 보통 쉬운 일이라. 무더운 여름날 태양 아래에서 허리를 몇 번이나 숙였다가 폈다가, 병든 고추를 골라내고, 하나씩 꼭지를 따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방앗간에서 새빨간 고춧가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힘든 작업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시면서도 본인인 아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신다. 삶의 중심이 언제나 가족인 것이다. 그래서 이도위 강사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고추를 말린 당신들의 손을 바라보며 손에게 고마워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랐다. 그렇게 탄생한 시가 〈고마운 내 손〉이다. 기대 이상으로 멋진 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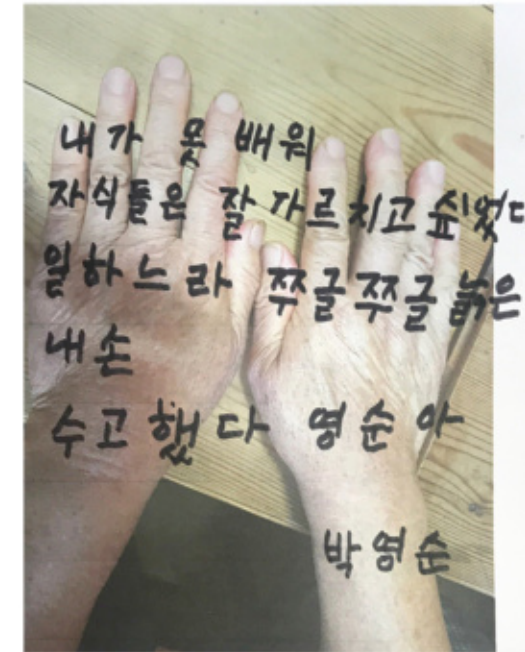
박순우 어르신

좋은 집에 시집가신 박순우 어르신은 젊은 시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다. 곱디고운 새댁 손에 이제는 힘줄이 툭툭 튀어나왔지만 한 사람의 세월이 담긴 아름다운 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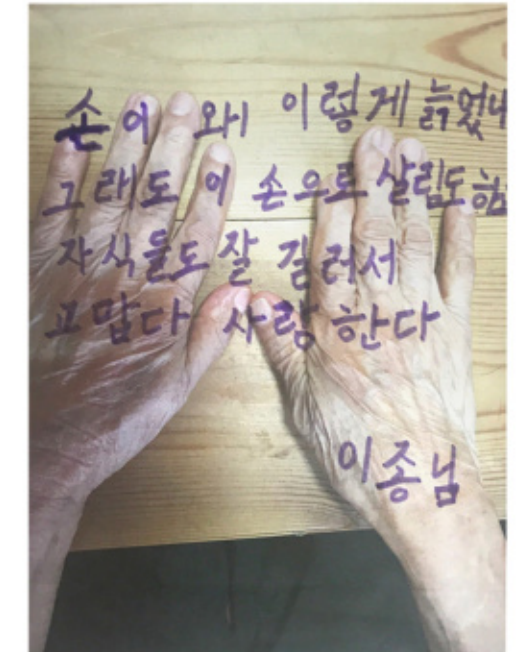
장춘자 어르신

식구들 김치 담가 먹인 고마운 손을 가진 장춘자 어르신은 예전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만들어서 파신 적도 있다. 자식에게도 고추 값을 받는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신다. 남은 장사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고추 말리는 일이 힘들다 보니 그 장사는 안 하신단다.



이종임 어르신

다섯 분 중 웃음이 가장 많으신 이종임 어르신은 맛살 공장에 3년간 다니시면서 스스로 돈을 벌었을 때가 제일 좋았다 하신다. 이제는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는 <글보다 꽃할매> 모임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이종임 어르신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아 주신다.



박영순 어르신

박영순 어르신은 언제나 친구들과 같이 먹을 음식을 한 보따리 가져오신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박말순 어르신

손이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 손은 어르신들 중 시를 가장 많이 짓는 시인의 손이 됐다. 어르신은 셋방살이를 할 때도 자식들을 공부시키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신다.



학익1동 마당예술동아리 '학나래두드림' 엎어져도 뒤집혀도 학나래두드림



작 품 명 미추홀 물길, 엎어라 뒤집어라

장 르 난타극

작품내용 빨래하고, 고기도 잡고, 미추홀구에서 흐르는 천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들의 일상.

어느날 산업화로 인해 도로로 복개되어 버린다는데,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순 없다!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볼 수 있을까?

마당지기 이재혁

참여인원 곽애리, 김옥희, 김태순, 민경자, 박미자, 박은주, 서명숙, 유순자, 이라미

이정금, 임정숙, 최정자, 최은희, 한명자, 홍승리 (총 17명)

참여강사 반승환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학나래두드림〉의 위기 극복

올해 놀래 무대에 오른 〈학나래두드림〉 동아리원은 무려 14명이다. 학산소극장 무대를 꽉 채울 만한 인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만 해도 동아리는 잦은 동아리원 탈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었다. 난타 공연의 특성상 너무 적은 인원으로는 완성도 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데 한계가 있고 난타 연주와 연극을 동시에 소화하기도 힘들었을 테다. 그런 위기를 돌파하고자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초급반을 개설했다.

그래도 걱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존 중급반 동아리원들과 신규 초급반 동아리원들의 연주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사실 이상적인 모습은 중급반이 난타 연주를 주로 하고 초급반이 연극을 맡는 것이지만, 공연의 완성도 때문에 억지로 그 역할을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초급반 동아리원들이 적극적으로 배역을 맡았다. 배역을 결정할 때마다 “저요!”라는 외침이 들렸고, 그 누구의 입에서도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는 1인 3역까지 소화한 동아리원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연주는 자연스럽게 중급반이 담당할 수 있었다. 쉬운 연주는 함께, 연극은 초급반, 고난도 연주는 중급반. 관객은 눈치 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균형이 조화롭게 자리를 찾았다. 반승환 강사는 동아리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것만으로 고맙지만, 무엇보다 역할 분배가 수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가장 고마웠다고 한다. ‘미추홀 물길, 엎어라 뒤집어라’라는 공연 제목처럼 엎어지고 뒤집어질 뻔한 위기였지만 동아리원들과 강사가 힘을 모으니 이겨 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제는 중급, 초급 구분 없이 함께 가는 거야!”

현재의 〈학나래두드림〉 인원이 모두 모인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초급반, 중급반이 구분되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누는 동아리원들이었다. 중급반의 박미자 동아리원은 〈학나래두드림〉을 함께 시작했던 친구들이 작년 공연을 끝으로 탈퇴하자 혼자 남게 됐다. 그런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새로운 동아리원들과 섞이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하지만 배역을 나눌 때 적극적인 동아리원들의 모습을 보자, 이 친구들과는 힘을 합쳐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또한 연습을 하는 매주 월요일 외에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다 보니 더욱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동아리원들은 어느새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는 동네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누가 기존 동아리원이고 누가 신규 동아리원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이질감 없는 동아리 분위기가 형성됐다. 공연이 끝나고 진행된 평가회의 도중 들린 누군가의 한마디가 참 따뜻했다.

“이제는 공연도 함께했으니, 중급 초급 구분 없이 함께 가는 거야!”

하천과 나는 추억

〈학내래두드림〉은 이번 공연에서 흥겨운 난타 연주와 더불어 미추홀구에 있던 천(川)의 과거 모습, 복개된 현재, 복원된 미래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러한 주제가 단번에 탄생하지는 않았다. 두 달여간의 논의 기간이 필요했다. 문화원에서 지정한 올해의 주제가 물(水)인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동아리원들의 기억 속에 있는 물과 관련된 추억을 공유해 봤다. 꼭 인천 미추홀구가 아니더라도, 경상도에서든 충청도에서든, 자신들이 살면서 쌓은 물과의 추억을 함께 나누다 보니 '물에 대한 추억'을 주제로 삼자고 의견이 좁혀졌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 하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피란 천으로 하천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승기천의 존재를 발견했다. 원래 동아리원들은 1993년부터 지도상에서 사라진 승기천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승기천만을 공부하다가 용현천, 학익천과 같은 다른 하천들까지도 알게 됐고, 복개되기 전 당시 주민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고증하는 작업까지 거쳤다. 승기천 복원 사업 설명회까지 다녀올 정도로 이들은 열정적이었다. 그 결과 승기천의 이야기와 동아리원들의 추억을 접목시키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간혀 버린 추억을 복개된 승기천에 비유하여, 추억이 되 살아났으면 하는 소망을, 즉 동네의 하천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연에 담아냈다.

동아리원들이 하천과 함께 쌓은 추억은 참 다양하기도 하다. 냇가에서는 수풀을 헤치며 민물새우를 잡거나 먹을 감고, 도랑에서는 미꾸라지를 잡다가 거머리에 물리기 일쑤였다. 소쿠리 하나만 들고 나가면 붕어를 잡을 수 있었다. 손이 공공 얼 때까지 돌에 대고 뿔뿔래를 한 것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됐다. 믿거나 말거나, 그때 그 시절에는 설악산에서 머리로 감았다. 동아리원들은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면서 꼭 여덟 살 아이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진심으로 하천이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는 하천이 생겨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물놀이하기도 힘들겠지만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친수 공간은 주민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일상 속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천이 아닐까 싶어요."

〈학내래두드림〉 팀의 진심을 담은 퍼포먼스 덕분에 풍성한 무대가 완성될 수 있었다.

학내래두드림의 든든한 버팀목 - 이재혁 마당지기



〈학내래두드림〉에는 팀 전체를 이끌어 가는 특별한 동아리원이 한 명 있다. 바로 이재혁 대장(마당지기)이다. 동아리 창단 멤버이자 유일한 남자인 이재혁 대장은 동아리원들을 결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리원들 중 열성 대장바라기가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대장이 수년째 동아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은 무엇인지, 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01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내래두드림의 대장 이재혁입니다.

02 어떻게 학내래두드림의 대장이 되셨나요?

유일한 남자 회원이라, 자기들끼리 정하고 나한테 통보를 했어요. 하하, 이제는 주위에서 하도 대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빠지면 모임이 와해될까 봐 책임감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재미도 있죠.

03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정말로 단지 책임감 때문인가요?

사실 내 인생관과 연결돼 있어요. 수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40대가 되면서 앞으로 중년, 장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활동을 줄다 보니 갱년기가 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중·장년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떤 것들을 해야 주민들이 환한 표정으로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동네를 위해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대장을 맡아서 했어요. 그 직을 유지한 건 내 의지예요.

04 올해는 새로운 동아리원이 많았는데,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처음 오면 아는 사람들끼리 짝꿍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섞였어요. 저는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동아리원들 사이에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얼른 대처하죠. 또 화식도 많이 했고, 하하. 지금 우리 팀 보세요. 분위기 좋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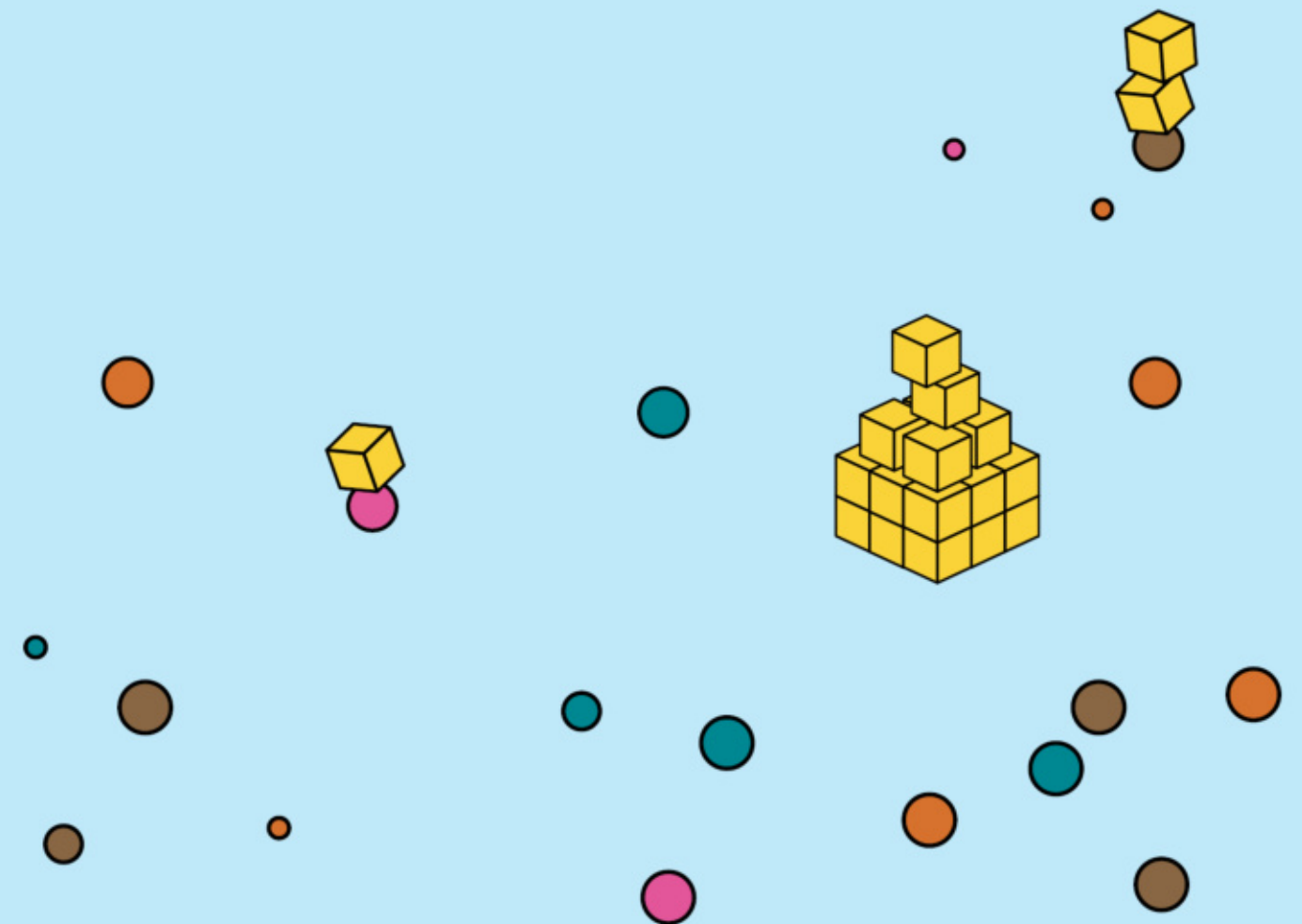
05 언제까지 대장으로 활동하실 건가요?

사람들에게 '학익1동의 학내래두드림'이라고 하면 "아, 그 동아리? 거기?"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알려지는 수준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때쯤 대장을 물려주고, 일반 동아리원으로서 즐겁게 난타 치고 싶어요.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 미추홀수다

3)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 청소년 '상상치 못한 정체' : 학교 밖의 우리들
-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마냥' : 비(備)장애인에게 전합니다
- 송의2동 '코스모스 핀 장사래' : 무대 위에 선 어른신들이 주는 감동
- 다문화 '글로벌' : 이슬이 바다가 되기까지



청소년 마당예술동아리 '상상치 못한 정체'

학교 밖의 우리들



작 품 명 작은 별의 노래

장 르 연극

작품내용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강렬한 마음은 우리를 사회의 통념이나
선입견과 타협하지 않게 한다.

그런 의지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작은 별과 같은 요즘 아이들이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마당지기 송인지

참여인원 고혜진, 김나경, 김시원, 박민하, 박주형, 박푸름, 정진우, 유한용 (총 9명)

참여강사 김은미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학교 밖 청소년의 이야기

〈상상치 못한 정체〉동아리원은 다수의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한데 모인 날, 동아리원들은 각자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위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서로 낯을 가리는 동아리원들 주위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데, 어쩌면 누군가도 이들이 학교를 벗어난 데에 폭력이나 소외가 관련되었을 거라고 선볼리 예상할지 모른다. 하지만 동아리원들에게는 함부로 넘겨짚을 수 없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었다. 그 사정은 존중받아 마땅한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했고 또는 주변의 상황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주눅부터 꺼내 놓은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아리원들은 자기 일인 듯 공감하고, 가끔은 담담하게 말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보다 자기들이 더 분통이 터져서 욕을 할 때도 있었다.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다 보니 초반의 서먹했던 분위기는 점점 흐려졌다.

대화를 나눈 후에는 이야기를 즉흥극으로 재구성했다. 처음 시도하는 연기에 다들 온몸을 기울여 애써 애써 죽겠다는 티를 냈는데, 로봇처럼 딱딱하게 대사를 뱉으면서도 막상 못 하겠다고 뒤로 빠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즉흥극 두 개, 억울하게 학교 폭력 피해자로 몰려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던 이야기와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힘든 적응기를 보내는 이야기는 〈상상치 못한 정체〉팀의 연극 작품이 되어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많은 어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막연한 걱정이 담긴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상상치 못한 정체〉가 보여 주듯,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은 때로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른들만의 사정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하다. 동아리원들과 김은미 강사는 그런 사정을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작은 별의 노래'에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다. 슬픈 기억을 주제로 경험을 털어놓은 날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한 동아리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린 나이에 겪은 어머니의 죽음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심정을 들은 동아리원들은 '작은 별의 노래' 마지막 이야기에서 엄마와 딸의 이별을 다루자고 제안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들 엄마, 학교가 〈상상치 못한 정체〉동아리원들에게는 공식으로 남아 있다. '작은 별의 노래'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그때의 상실감이다.

공유와 공감은 위로가 된다

동아리원 대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연극을 만들고 무대 위에 올라갔다. 함께 모여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 꺼낸 적도 처음이다. 동아리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

으면서 사람들 모두 제각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떤 말을 해도 공감해 주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그 자체로 위로받았다.

쿠루루가 말하기를,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퇴한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의 반응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된다. '학교 안 다녀서 좋겠다'는 말이나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하소연은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상치 못한 정체〉동아리원들과 있을 때에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을 염려스럽게 보는 대신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 주는 친구들 덕분에 위안을 얻었다.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살았던 자매(토끼, 집사)는 이곳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남매(찌개, 형형)를 만났다. 종교를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두려워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동질감이 느껴지는 남매를 만나서 자신들의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동아리원 역시 슬픈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연극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모두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상상도 못한 정체〉동아리원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이들 사이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고, 심지어 여자반, 남자반이 나뉘어서 그 경계에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는 것만 같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동아리원들은 다 같이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친구가 됐다. 김은미 강사는 이제 동아리원들을 보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결속력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만의 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패션쇼 – 작은 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

사실 〈상상도 못한 정체〉팀이 처음 결성될 때는 연극 무대가 아니라 패션쇼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소년들이 연극보다는 패션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션쇼 형식을 결합한 연극 무대를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만둔 동아리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알고 보니 동아리원들이 패션쇼에 기대한 점은 많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옷이 많다면 하나쯤 얻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귀여운 야망만이 숨어 있었다.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것이 더 감동적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래도 패션쇼라고 알고 온 동아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완전히 놓아 버리기는 아까웠다. 게다가 짧은 이야기 여러 개가 연결되는 옴니버스 연극이다 보니 사이사이에 패션쇼 형식을 접목하기 탁월했다. 동아리원들은 청소년답게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파격적인 의상을 고르는 데 관심이 많았다. 경찰을 꿈꾸는 드래곤은 제복을 입은 후에 멋있다는 소리를 한 트릭 들었다. 공연 당일에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과한 화장을 한 채로 즐거워했다. 관객들이 오직 내 얼굴과 옷에 시선을 집중하는 동안 당당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활보하던 동아리원들을 보면, 이 당찬 10대들에게는 염려보다 응원 더 어울린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실감 난다.

작은 별들의 꿈

배움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듯 〈상상도 못한 정체〉동아리원들 또한 학교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며 대회에 나간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으로 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설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공주, 작가, 코난, 글썬, 형형, 찌개, 쿠루루, 토끼, 집사, 드래곤, 까룩'이라는 별명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동아리원들이 꿈꾸는 장래희망도 역시나 다채롭다.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이 날 이 친구들에게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

작 가 상담사가 되고 싶다. 예전에 만난 상담사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힘들었다. 나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그때의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다.

공 주 아직 꿈을 찾아 가는 중이다. 스스로 낮을 많이 가리고 수줍은 성격인 줄 알았는데, 연극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내 한계를 낮게 설정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한 느낌이다.

쿠루루 내년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대에 가고 싶다.

글썬 꿈이요? 글썬요……. 영 앤 리치.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것저것 해 보고 싶다. 요리도 좋아하고 목공예에 관심이 많다. 무엇이든 만드는 게 좋다.

형 형 축구학과에 진학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축구 감독이라거나. 원래 중국에서는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언어 장벽 때문에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이다.

고 헤 아직 꿈은 없다. 낮을 많이 가려서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불편하다. 하지만 친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보여 주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드래곤 군인이 꿈이다. 경찰도 좋다. 예전에는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무릎이 다쳐서 그만뒀다. 군인이나 경찰처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까 룩 예전에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고 욕을 먹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생각이 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남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집 사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은... 노래방에 많이 가는 것?

찌 개 수의사가 되고 싶다. 지금은 중국어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중어중국어학과에 진학할 거지만 복수전공이나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다.

코 난 공군 부사관이 되고 싶다. 해군은 물이 싫어서 안 되고, 육군은 산골짜기를 옮겨 다니기 싫어서 안 된다. 벌써 부사관 학교에 합격한 상태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마당예술동아리 '마냥' 비(備)장애인에게 전합니다



작 품 명 非(비)? 備(비)!-버릇없는 수다

장 르 연극

작품내용 여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는 친구들.

시각장애를 가진 명원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이는 명원이 모자라다는 의식 속에 담긴 배려일 뿐이다. 이런 태도에 질린 명원의 일침이 시작된다.

마당지기 김명원

참여인원 박양현, 박해인, 송신자, 이해경, 조준행, 채명희, 홍성찬 (총 8명)

참여강사 오지나, 이상명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악의는 없으나 버릇도 없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마냥>은 시각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동아리다. 각각의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구성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다 보니 <마냥> 역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올해는 즉흥극을 하며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동창 모임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왔다. 이해경 동아리원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가리키며 “애 좀 데리고 있어.”, “애를 왜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아니, 짐작도 아닌데 말기기는 뭘 말긴다는 말인가. 김명원 동아리원은 친구가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들어 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겪은 일화가 하나씩 모이다 보니 이번 작품의 콘셉트를 동창회로 설정하자는 결론이 났다. 하나하나의 일화 속 친구들이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무례함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마냥>은 ‘버릇없는 수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다.

그리고 주인공인 네 명의 중년 여성들은 알고 보면 각자의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온 커리어 우먼, 손주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젊은 할머니, 식중이 취급 받는 아내……,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 보편적인 50대 여성들의 모습이다. 물론 그 장애가 일시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장애란 누군가에게는 왔다가 떠날 수도 있는 것.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자국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 명원은 ‘누구나 비장애인’이 아니라 ‘예비장애인’이라고 외친다. <마냥>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용기를 낳는 용기



<마냥>의 무대는 이번 놀래 공연 중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은 무대였다고 감히 말해 본다. 그만큼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이었다. 그리고 이런 무대를 만들기까지 동아리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뒤따랐다. 암흑 체

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낯선 곳에서 걸음을 떼는 일은 쉽지 않다. 동아리원들이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 익히는 데는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또 하나의 난관은 대본이었다. 점자 대본이 있지만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사를 녹음한 파일을 듣고 또 들으면서 연습해야만 했다. 공연 당일까지도 이

어폰을 꺾고 중얼중얼 대사를 외우는 동아리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팀에 비해 대본을 느리게 익힌 〈마냥〉 팀이라 혹시라도 무대 위에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근심을 비롯듯 동아리원들은 완벽한 공연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용기와 노력을 빚어 탄생시킨 무대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마냥〉의 공연에 박수와 함성을 보낸 관객 중 일부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놀이터 식구들로, 이들은 시각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공연이 시작될 때 “예쁘다!”, “잘한다!”라고 소리친 당사자이기도 하다. 춤까지 추면서 공연을 즐겼다고 하는 이들에게 〈마냥〉의 이야기는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래서인지 가슴 절절하게 와 닿는 최고의 공연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중 한 명은 오지나 강사에게 내년에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함께 연극을 하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라는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하는 〈마냥〉의 용기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용기 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

무대에 서는 것의 의미

앞서 말한 것처럼 〈마냥〉의 동아리원에게는 무대 위에서 발을 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을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해낸 동아리원들에게 ‘무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들이 전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연극보다도 더욱 감동적이다.

채명희 ‘직장을 가진 중년 여성’의 모델이 된 채명희 동아리원은 야간에는 일하랴 낮에는 연습하랴 힘든 연습 기간을 보냈다. 그만큼 멋진 연기를 선보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번 공연을 준비한 이유가 하나 있다. 〈마냥〉의 무대는 채명희 동아리원의 예비 사위가 예비 장모님을 처음으로 보는 자리였다. 채명희 동아리원은 혹 시라도 딸과 예비 사위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자신의 장애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었다. 그러던 중 이번이야말로 예비 사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기회라는 확신이 생겨 딸과 그의 남자친구를 초대했다. 집에서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모습보다 무대 위에서 활기차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 주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예비 사위로부터 ‘짱’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으며 첫 만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예비 사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채명희 동아리원의 이야기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홍성찬 〈마냥〉 동아리원 중 무대 위에서 가장 떨었던 사람은 바로 홍성찬 동아리원이 아닐까 싶다. 당시 너무 긴장해서 손을 몇 번이고 쥐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오지나 강사에게 들키고 잔뜩 놀림을 당했다.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하는 홍성찬 동아리원은 최종 연습을 할 때까지도 대사가 잘 외워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막상 무대 위에서는 훌륭하게 맡은 바를 소화했다. 연극을 마치고 나니 놀라울 정도로 뿌듯한 심정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온다면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다가 은근히 소심했던 성격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반가운 말도 전했다. 옛날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그는 노래 대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지만 겁이 나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연을 해 보니 충분한 연습을 거친다면 노래 대회에 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성대를 다친 상태라 당장 도전하기는 힘들지만, 언젠가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무대를 휘어잡는 홍성찬 동아리원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해인 연극에 처음 도전하는 박해인 동아리원은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설레고 행복했다. 연습하는 동안 대사를 자주 까먹었지만 무대 위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만들지 않았다. 다른 〈마냥〉 동아리원들은 공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박해인 동아리원만큼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수상을 하러 다시 무대 위에 올라갔다. 상을 받는 그 순간의 표정은 지금까지 지었던 어느 표정보다 환했으며 행복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계속 연극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박양현 박양현 동아리원 역시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연극이라는 두 글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면 하겠지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서 〈마냥〉을 찾은 박양현 동아리원이다. 그는 공연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신의 고생과 보람을 말하기에 앞서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먼저 건넨다. 언제나 호탕하게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박양현 동아리원다운 행동이다. 오지나 강사는 박양현 동아리원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연극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혜경 이혜경 동아리원은 대본이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대본을 통째로 달달 외웠던 모범생이다. 게다가 배려하는 마음씨도 커서, 다른 동아리원들의 대사를 대신 챙기고 이들을 격려하는 〈마냥〉의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성격은 어찌나 화통한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이 날 정도다. 그런 이혜경 동아리원은 앞으로도 계속 연극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꾸준히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 언젠가 시각장애인 예술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조준행 조준행 동아리원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손동작이다. 굴러가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굴리는 행동을 과연 해냈는지에 대해 다른 동아리원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 조준행 동아리원은 언제나 양손을 공손하게 모은 채로 연기하기 때문이다.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 역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태도다. 다행히 연습 끝에 무대 위에서는 무사히 손을 굴렸다. 또한 대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공연 당일엔 화장실에 가면서도 대사를 중얼중얼 외웠다. 그 모습을 본 오지나 강사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조준행 동아리원은 이번 공연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워지지 않는 대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무대 위에서 실수 하나 없이 대사를 친 후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고 내려왔다.

김명원 주인공 역을 맡아 대사가 제일 많았던 김명원 동아리원은 막바지까지 이어폰을 끼고 연습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처럼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내려는 모습 뒤에는 마음고생한 시간이 숨어 있다. 극 중 주인공의 장애를 배려하지 않는 동창회 친구들의 태도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처음 장애를 가질 때의 충격을 다시 느껴야 했던 김명원 동아리원이다.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당연히 매우 힘든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힘들다고 물러서는 것은 책임감이 용납하지 않았다. 오지나 강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마냥〉의 동아리원들과 서로 북돋아 주는 시간을 가지며 무사히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주인공 명원의 캐릭터와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관객뿐만 아니라 〈마냥〉 회원들의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었다.

송신자 올 해로 2년 째 활동하고 있는 송신자 동아리원에게 〈마냥〉은 특별한 곳이다. 그의 아버지는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을 하지 못 하게 했다. 꽤 오랜시간 집에서만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복지관도 등록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싶은 거 먹으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다.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밖에 있으면 너무 재밌어”하며 깔깔깔 웃는 송신자 동아리원에게 〈마냥〉 활동은 매 주 소풍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다. 물론 대사를 외우는 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작년보다 훨씬 많아진 대사로 훌륭하게 소화해 냈다. 연습 때 마다 본인 대사는 틀리면서 다른 사람 대사를 달달 외워서 오지나 강사에서 잔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잔소리를 듣는 중에도 깔깔깔 웃는 그는 〈마냥〉에 없어서는 안 될 해피바이러스다.

송의2동 마당예술동아리 '코스모스 핀 장사래' 무대 위에 선 어르신들이 주는 감동



작 품 명 나비의 꿈

장 르 연극

작품내용 노년의 나비는 혼자 밥을 먹는다.

마주 앉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비들은 남은 여력을 다해 훨훨 날아가고자 한다.

모두와 함께.

마당지기 장은화

참여인원 김순남, 김인순, 백광열, 전인경, 최순이 (총 6명)

참여강사 이도위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혼밥 하는 어르신들

언제부터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밥이라는 말이 쓰인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뜻의 이 단어는 혼밥 메뉴를 추천하는 블로그나 혼밥 사진을 자랑하는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야 유행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중, <코스모스 핀 장사래> 어르신들이야말로 혼밥 레벨 100을 달성한 프로 혼밥족이다.

“어르신, 오늘 점심에는 뭐 잡수셨어요?”

동아리 모임이 있는 매주 수요일,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정겨운 답변이 돌아온다.

“보리밥에 청국장 먹었어요. 청국장에 김치국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거기다 김치를 톱톱 잘라서 조금 넣구. 이 없는 사람이 딱 먹기 좋아.”

“고구마에 요플레 먹었어요. 은행 앞에서 고구마를 소쿠리로 파는데, 굵은 게 값은 싸더라구. 찌다가 물러질 것 같아서 구웠더니 물기가 자박자박하니 괜찮았어요.”

물어보지 않은 요리 비법까지 손수 나서서 알려 주시고, 방금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입맛이 돌 만큼 실감 나는 묘사가 따라온다.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인 어르신들이 점심 메뉴를 여쭙 때마다 이토록 정성스럽고 구수한 답변을 들려주시는 게 신기하다. 왜 혼자 있으면 밥상에 소홀하기 마련이지 않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도위 강사와 어르신들이 처음 만난 날, 뭐 좀 드셨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그럭저럭 대충 먹었다’는 것이었다. 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고 온 분도 계셨다. 고기반찬 하나 없는 어르신들의 식단이 열려된 이도위 강사는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드시라고 권했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배려하며 잘 챙겨 드시라는 따뜻한 권유였다. 한 주 한 주 지나자 ‘차려 놓고 먹었다’는 대답이 들리기 시작했다. 밥 먹는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먹고 싶은 음식, 그리운 고향 음식, 음식 먹이고 싶은 사람……. 고향 음식을 생각할 때면 젊은 시절을 회상하게 되고, 음식 먹이고 싶은 사람을 꼽다 보면 꼭 가족들이 나온다. 점심 메뉴를 물었을 뿐인데 어르신들은 어느새 당신들이 살아 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렇게 나눈 대화가 하나하나 모여서 작품 전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

사실 끼니를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삼시 세끼 소담스러운 밥상을 차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동아리 모임을 계기로, 어르신들은 나를 위한 밥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

“혼자 먹더라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모임이 이루어진 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이야기다.

나비의 꿈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다시 번데기가 되고, 마침내 껍질을 뚫고 나와야만 화려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나비가 된다. 어르신들이 그러한 나비와 같다고 이도위 강사는 생각했다. 식사 이야기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긴 세월 동안 삶을 견뎌 온 어르신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나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훨훨 날아오를 시점이다. 그런데,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다. 애석하게도 주변 상황이 자유로운 비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로나마 날고 싶은 소망을 이루고자, 나비가 되면 날아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에 가고 싶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다양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의 반대편까지 가고 싶다는 말은 의외였다. 하기는,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 어르신들에게는 날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 모양이다. 나비 소품을 들고 무대 위에 섰을 때, 어르신들은 당신이 정말 한 마리의 나비가 된 것 같아서 행복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웃음꽃밭에서 피어나는 칭찬

〈코스모스 핀 장사래〉 어르신들에게 동아리 모임은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나비가 모이는 곳에 꽃이 있는 자연의 섭리처럼, 어르신들이 모인 이곳에도 웃음꽃이 잔뜩 피어난다. 시종일관 웃음 짓는 어르신들은 서로 예쁜 말, 좋은 말을 나누는 인심도 후하다. 어르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잠시 엿들어 보자.

최순이 : 보청기를 10년 넘게 써서 잘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여기에 안 나오려고 했어. 그런데 옆에서 크게 말해 주고 다들 배려하니까 나와서 즐겁게 할 수 있었어.

김인순 : 아, 과부 신세 과부가 안다고, 잘 안 들리면 옆에서 말해 주면 되잖아 하하.

최순이 : 나는 내 웃음이 백만 불짜리 웃음이라는 말이 좋아.

김인순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나는 선생님이 맨날 잘한다, 잘한다 해 주셔서 좋았지. 예쁘다는 말도 들어서 좋았어.

백광열 : 여기 오는 거? 아휴, 성가서 죽겠어!

일 동 : 꽃 속에서 노는데 왜 성가세요! 우리가 꽃이잖아.

백광열 : 늙은 사람들인데 좋을 게 뭐 있어?

일 동 : 호박꽃도 꽃이지!

백광열 : 여기 오라고 전화하니까 오는 거야.



귀가 어두운 최순이 어르신(좌) 옆에서 언제나 큰 소리로 말을 전달하는 김인순 어르신(우).



마이크를 쥐기만 하면 노래하는 백광열 어르신.



선생님이 기념으로 선물한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김순남 어르신.



힘차게 던진 풍선을 받는 전인경 어르신.

일 동 : 한 번도 안 빠진 양반이. 좋으니까 오셨겠지! 우리 백광열 어르신은 노래를 너무 잘 불러, 노래를 참 잘하셔.

김순남 : 나는 집에 있는데 나오라고 전화해 주는 게 참 좋더라구.

일 동 : 순남 씨는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로워서 좋아. 보건소 갈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더라고.

김순남 : 에이, 다들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돕는 거지.

일 동 : 아니야, 마음이 참 착해.

전인경 : 선생님께서 내 목소리가 음성이 좋다고 해 준 게 좋았어. 선별 씨도 전화할 때마다 항상 전화 잘 받아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도 좋았어.

이도위 강사와 어르신들



세 팀의 동아리와 함께하는 이도위 강사는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이지만 특히나 어르신들에게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다. 다정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어르신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싶다. 그중 〈코스모스 핀 장사래〉로부터 받는 사랑이

지대한데, 최순이 어르신은 이도위 강사에게 김장 김치를 선물하고 싶어서 마지막 모임 도중에 김치를 가지러 집에 다녀오기까지 했다. 한사코 사양해도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도위 강사만 어르신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도위 강사의 태도에는 어른을 대하는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다.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 온 자체가 감동이고 존경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코스모스 핀 장사래〉의 무대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나비의 꿈’이라는 작품 안에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어르신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힘을 들여 배우기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딱 한 가지 바란 것은 어르신들이 매주 이곳에 모여서 마음 편히 수다를 떨고 가는 것이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들은 마음속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김인순 어르신은 이도위 강사와 대화하는 시간이 마치 상담 같다고 하셨다. 당신들의 마음을 꼬집어내 줘서, 한을 풀어 줘서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다.

반대로, 이도위 강사도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점이 많다. 한 해 동안 아무런 짜증도 불평도 없이 수업에 잘 참여해 주신 것이 고맙고, 특히 수업 중에 들리는 웃음소리 때문에 함께 즐거워질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직접 선물도 준비했다. 동아리 활동사진과 ‘나비의 꿈’ 대사를 적은 액자였다. 어르신들은 액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끝내는 뒷면에 이도위 강사의 사인까지 받으셨다. 유명인과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웃음이 터졌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가 충분히 느껴졌다.

다문화 마당예술동아리 ‘글로벌’ 이슬이 바다가 되기까지



작 품 명 그렇게 며느리가 된다

장 르 연극

작품내용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난 이슬방울들..

다른 문화와 언어 인식 속에서 여러 과정과 삶을 거쳐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간다.

그리고 여기 미추홀에서 모여, 며느리가 되고, 우리들의 가족이 된다.

마당지기 배이루

참여인원 강자윤, 박금화, 반현주, 푸영 생후영, 황호병, 이애지 (총 7명)

참여강사 김유미, 정성원

공 연 일 2019년 11월 23일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공연)

한데 모인 이슬들

물은 육해공을 자유롭게 순환한다. 그리고 여기, 물처럼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가로질러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 이 물의 정령들은 중국, 캄보디아라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가족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모였다. 이들의 정체는 다문화 동아리 <글로벌>의 동아리원이다. <글로벌>과 함께한 김유미 강사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가 한데 모인 동아리원들이 마치 이슬방울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이번 공연에서 <글로벌> 팀은 음악과 춤을 활용하여 이슬의 이미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음악 중 또르르 흐르는 이슬의 소리를 닮은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캄보디아의 전통 춤 '압사라'의 음악이 청아하고 맑으며 춤동작 또한 물의 움직임처럼 부드럽다는 것을 발견했다. 춤추는 여신을 뜻하는 캄보디아 크메르족의 전통 춤은 아름다우면서도 누구든 충분히 소화할 만큼 간결했고 동아리원들 역시 춤을

좋아했다. 캄보디아의 전통 춤을 찾았으니 이번에는 중국의 전통 춤 중에서 압사라와 비슷한 선율의 것을 찾아 두 나라의 전통 춤으로 이슬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로 했다. 각 나라의 동아리원들이 직접 춤 선생님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압사라는 춤은 인터넷으로 동영상만 보면서 익혔고 중국의 루어화는 춤 동아리 일원인 배이루 동아리원이 배운 것을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가르쳐 줬다. 다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라 박자가 조금씩 제각각이기는 했지만 하나씩 맞추고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머느리가 된다

<글로벌>의 공연에 음악과 춤이 많이 들어간 것은 음악을 전공한 김유미 강사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동아리원들을 배려한 것이기도 했다. 동아리원들이 많은 양의 한국어 대사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오히려 연극적 요소를 더 많이 추가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동아리원들은 한국어 대사와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그렇게 머느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알 수 있듯 <글로벌>은 결혼 이민자로서의 경험과 심정을 연극에 담았다. 처음부터 명절이라는 소재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수다 떨면서 한국에 와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을 함께 나누던 와중에 유독 한국과 외국의 명절 모습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명절 풍경은 비슷한 편이다.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웃고 떠들고, 집안일은 대부분 여자들의 몫이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외의 나라들은 확연히 달랐다. 중국에서 부엌을 차지하는 건 남자들이다. 요리할 때는 무거운 욕을 사용

하며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많게는 40명까지 되다 보니 힘이 좋은 남자들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서 온 동아리원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 시집왔을 때 남자들이 명절에 일을 하지 않아서 놀랐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때, 즐거운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외롭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리웠다고 회상한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다 함께 외국 명절과 한국 명절의 차이를 보여 주기로 결정했다.

연극은 한국의 명절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분담해서 일하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로 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 변화는 실제로 동아리원들의 각 가정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힘든 심정을 털어놓고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다 보니 집안의 어른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명절에 힘들게 밥상을 차리는 대신 외식으로 해결할 때도 있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부엌에 가지 않았던 남편이 어느새 자연스레 집안일을 맡아서 한다.

밥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에서는 명절에 월병을 먹기 때문에 한국의 명절 밥상에 송편과 월병이 함께 올라간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시아버지도 한두 번 맛을 보시더니 이제는 월병도 꽤 먹을 만하다고 평가하신다. 한국 음식은 시누이들이, 중국 음식은 본인이 만들어서 상다리가 부러질 듯 화려한 한 상을 차리기도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과 달리 4월에 설날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4월에는 캄보디아 식으로 예쁜 꽃과 과일을 상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린다.

문화는 한쪽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공존해야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글로벌>의 동아리원들 역시 지키고 싶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족들과 공유하며 유지한다.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렇게 머느리가 되었다.

바다를 이룬 이슬들



무대 위, 동아리원들의 손에는 핸드벨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이슬의 맑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핸드벨을 하나씩 흔들기로 했지만 나중에는 화합된 음악으로 이슬들의 '어우러짐'을 표현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벨 연주를 추가했다.

들려준 음악은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인 '오나라'. k-드라마의 선구자 격인 <대장금>은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캄보디아에서 온 동아리원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드라마를 봤다. 그래서 주제곡 '오나라'도 동아리원들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거나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음악을 외국에서 온 <글로벌> 동아리원들이 하나가 되어 들려줄 때, 땅을 가르고 있는 경계는 허물어지고 만다.

연극 그리고 한국어 공부



'그렇게 며느리가 된다'의 공연에서 함께 춤추던 이슬들은 어디선가 들리는 소음 때문에 멀리멀리 흩어진다. 소음의 정체는 한국에 왔을 때 동아리원들이 직접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다. 발음이 왜 그러냐는 등 한국어를 더 공부하라는 등 배타적인 말로 가득하다. 한국어를 7년이나 배운 배이루 동아리원은 어휘 구사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더 하라는 말을 듣는다. 단지 발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배이루 동아리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언제나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한다.

속상할 법도 하다. 동아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동아리원들은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맡은 일을 끝낸 다음 다문화센터 한국어 교실에 갔다가 <글로벌> 모임에 참여하는 바쁜 하루가 이들에게는 일상이 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열심히 공부한다. 언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벌써 4단계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황호병 동아리원은 다른 동아리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k-드라마와 k-pop도 빠질 수 없다. 앞서 말한 드라마 <대장금>을 예전에는 자막을 읽으면서 봤다면 이제는 자막 없이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래는 또 어찌나 다양하게 듣는지, 반현주 동아리원은 한국 걸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는 별명도 아이즈원이라고 지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푸영 생후영 동아리원의 최애 가수는 장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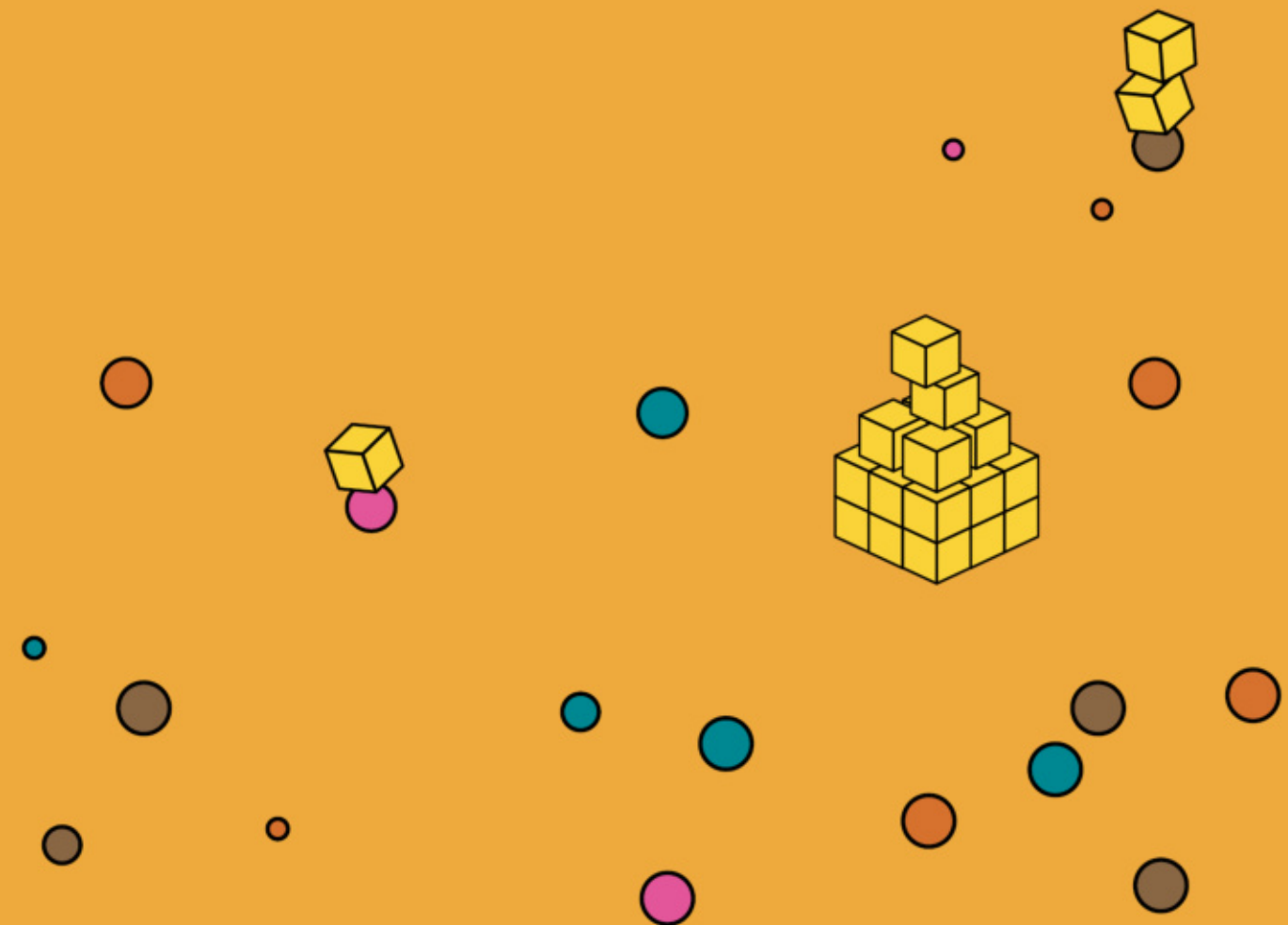
이들이 연극 동아리 <글로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한국어 공부와 관련이 있다. 동아리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연극 연습을 하면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었다'는 거다. 모국어로 대화할 때는 조잘조잘 신나게 떠드는 동아리원들이 한국어를 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한 사람이 되고 만다. 다문화센터 직원이자 이번 공연에 함께 한 강자윤 담당자는 회원들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다들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 모습에서 스스로 탈피하고자 <글로벌>에 모인 동아리원들이다. <글로벌>의 연극 대사는 많지 않지만 동아리원들은 어느 팀보 다도 많이 연습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는 사람들은 금방 외울 수 있는 대사를 수십 번 반복해서 외우고, 발음을 교정하고, 각자 소화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어야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동아리원들의 목소리에는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글로벌>을 통해 얻은 것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만이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 용기를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 줬다. 무뚝뚝하고 수줍은 성격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극을 배우고 연극 안에 춤과 노래를 넣고 싶다고 말한다. 부끄러워하다가도 무대에 오르면 순식간에 돌변하는 동아리원들은 김유미 강사로부터 무대 체질이라는 칭찬을 열 번도 더 들었다. 한국어 공부와 연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들의 성장이 궁금하다.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놀래'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시상식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놀래'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 일시 : 2019년 11월 23일 (토) 오후 2시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4층 학산소극장
- 내용 : 마당예술동아리 12팀 공연 및 심사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제6회 시민창작예술제 - 학산마당예술'놀래'에서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이 학산소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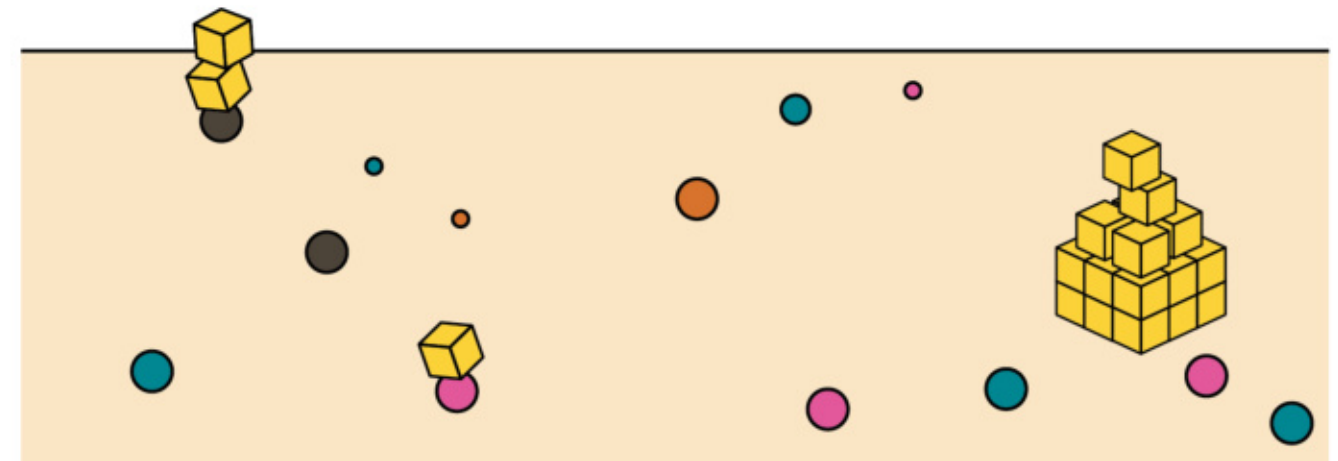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부터 팔순의 노인까지, 시각장애인, 결혼이주여성들까지 누구나 참여하여, 예술가와 함께 공동창작한 마당극 12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벌써 6년차를 맞는 경연마당은 이제, 우리 팀의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공연도 보며 호응하고, 공연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산소극장에서 진행된 올 해 경연마당은, 동아리들의 지인부터, 주민심사단, 지역관계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관객석을 꽉 채워 동아리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관람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경연마당에는 3명의 전문심사단과 함께 총 70인의 주민심사단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시민들만의 시선으로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의 생생한 현장과 작품이야기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 심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주민심사단의 심사평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마당예술동아리소개

송의1·3동 글보다 꽃할매
고추말리는 할매시인 / 연극

송의2동 코스모스 핀 장사래
나비의 꿈 / 연극

용현2동 용마루사람들
우리동네가 왜 용마루야? / 영상극

용현5동 캡틴걸스
살만해! 용현5동 / 연극

다문화 클로벌
그렇게 머느리가 된다 / 연극

학익1동 학나래두드림
미추홀 물길, 얹어라 뒤집어라 / 난타극

도화2·3동 어수선
또! 환경계엄령 - 공수대첩 /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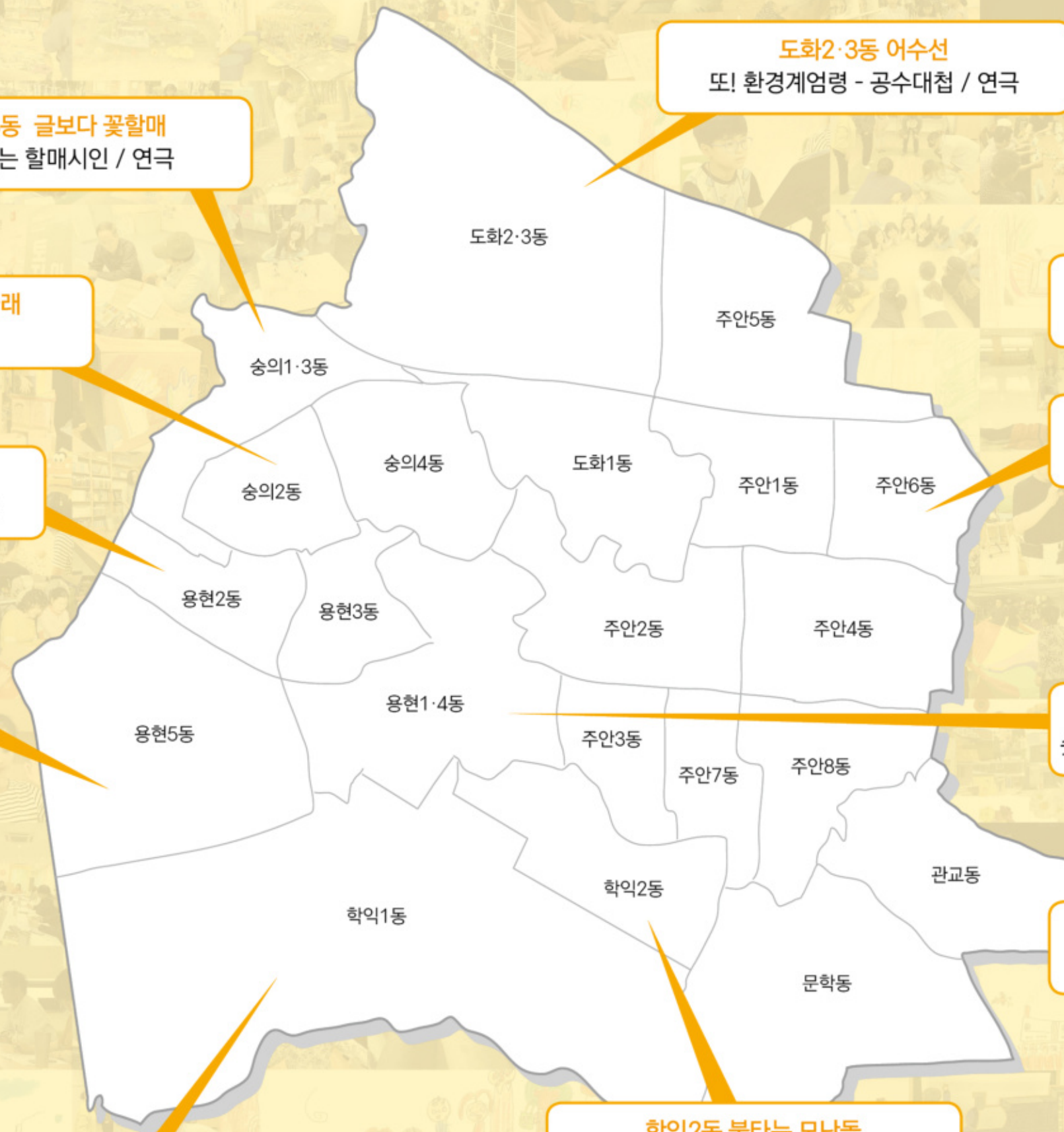
청소년 상상치못한 정체
작은 별의 노래 / 연극

주안6동 날리리아
비, 그리고 동양장사거리 / 연극

용현1·4동 한결
숫아라 숫아라, 맑은 물만 숫아라 / 풍물극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마냥
非(비)? 備(비)! - 버릇없는 수다 / 연극

학익2동 불타는 모난돌
新 별주부전 : 미추홀캐슬 / 연극



작은 별의 노래(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상상치 못한 정체 (청소년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강렬한 마음은 우리를 사회의 통념이나 선입견과 타협하지 않게 한다. 그런 의지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 작은 별과 같은 요즘 아이들의 세 가지 이야기.



한 줄 심사평

“누구나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 주민심사단 최연우

“지역 청소년 이야기지만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 이야기로 주제를 담음으로서 사회보편의 이야기(문제)를 반영했다. 이는 예술(연극)이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인(당사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청소년 배우들의 표현 시도가 아름다웠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미추홀 물길, 엮어라 뒤집어라(난타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학나래두드림 (학익1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빨래하고, 고기도 잡고, 미추홀구에서 흐르는 천과 함께 살아왔던 우리들의 일상. 어느 날 산업화로 인해 도로로 복개되어 버린다는데,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순 없다!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볼 수 있을까?



한 줄 심사평

“물길이 생명이고 삶의 줄기라는 메시지를 시원한 동작으로 표현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주민심사단 김보경

“마당극의 요소를 잘 보여준 작품이다.

인물(과거여인)이나 소재(다듬이 빨래 오브제)에서 전형성을 잘 담아 창의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구성내용에 있어서도 참여자들의 생애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서 공연의 완결성이 보인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물길을 되살린다는 주제와 신명나는 난타가 서로에게 상승작용을 하리라 기대했던 작품이다.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박자를 맞추는 모습이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느끼게 했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非(비)? 備(비)!-버릇없는 수다(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마냥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연계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여고 동창회에서 모인 친구들. 시각장애를 가진 명원에게 친절을 베풀지만, 이는 명원이 모자라다는 의식 속에 담긴 배려일 뿐이다. 이런 태도에 질린 명원의 일침이 시작된다.



한 줄 심사평

“장애인과 비장애인. 몸이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 주민심사단 김경희

“시각장애인의 연극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즐거운 시간 선물 받고 돌아갑니다.”

— 주민심사단 임경은

“꿈과 결여에 대한 이야기를 출연자들이 우렁찬 목소리의 수다로 보여준 작품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여 한 명만 시각장애인(명원 역)으로 나머지는 비장애인 친구들로 연기했다. 몸의 감각으로 겪어보지 않은 시각장애 경험을 다 안다는 듯이 편견을 가지고 배려하는 친구들에게 명원은 말한다.”

“안 보여서 불편한 것이지 내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야.”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고추 말리는 할매 시인(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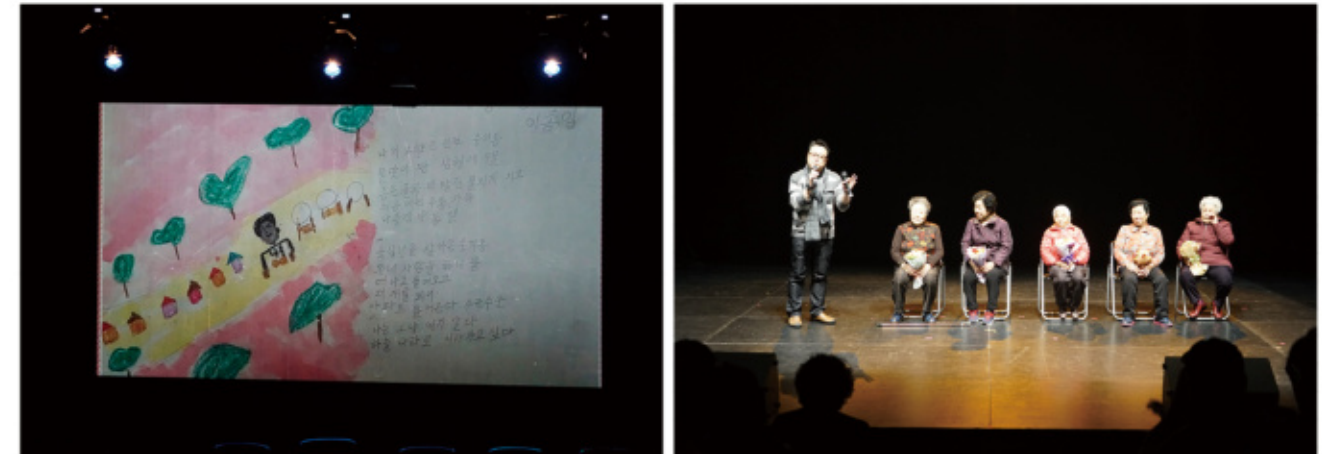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글보다 꽃할매 (송의1·3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한 사람의 손에는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다. 한 평생 송의1·3동에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손들을 시로 적어 내려가 본다. 정갈한 글씨 속에 묻어 나오는 인생살이를 들어본다. '35년 동안 고추말린 고마운 손, 우리 식구가 한 평생 김치담가 먹인 고마운 손'



한 줄 심사평

"내 어머님들의 화사한 자화상의 풍경, 행복해 보여 좋았습니다."

— 주민심사단 강수자

"우리네 부모님이요 이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오래 사십시오. 주민들 모두 응원합니다."

— 주민심사단 박상용

"인생이 시. 아름답습니다."

— 주민심사단 최연우

"실제 인물들의 등장 자체가 드라마인 공연. 인물 전형성을 들자면 할머니 배우들의 늦은 걸음속에서 캐릭터의 삶 자체가 보여지는 효과가 높다. 할머니 배우들의 움직임 자체가 드라마로 유추되어 인식되어진다. 무대 위에서 거친 표현과 리얼한 표현은 마당극의 양식적 형태를 띠고 있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살만해! 용현5동 (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캡틴걸스 (용현5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치열하게 살다보니, 지금 용현5동이 고향이 되 버린 사람들이 있다. 토박이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고향이라, 동네를 술술 이야기해본다. 낙섬, 토지금고부터 지금의 이야기까지! 용현동 살만해!



한 줄 심사평

“정겹고 동네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주민심사단 백목련

“소품, 분장, 특히 주황색 형광 양말을 신은 한 배우의 모습은 극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낙섬, 토지금고 등 공동체의 지난 이야기들이 추억의 사진과 함께 그 구성원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마술공연과 인터넷 방송은 내용의 심심함을 가려주는 익살스러운 장치였다. ‘발전 (변화)이 삶의 근간인 추억을 사라지게 한다.’는 대사가 이 극의 주제의식을 잘 담아냈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탈춤의 극 구조 형태를 취한 이야기 구성으로 마당극 형태의 꼴을 갖추. 사실 나열 방식, 마술 소재로 장면을 구성한 것은 전통연희에서의 구성 요소를 잘 활용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남사당 놀이의 재미와 마당극의 해학적 재미가 있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숫아라 숫아라, 맑은 물만 숫아라(풍물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한결 (용현1·4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동네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먹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풍물패가 마을에 맑은 물이 솟아나길 기원하며, 우물제를 지내야 한다. 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우물신이 나타나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 과연 맑은 물이 솟을 수 있을까?



한 줄 심사평

“전통을 지키고 전수하는 흥겨운 음악과 보기 힘든 상모 돌리기 등이 감명 깊었습니다.”

— 주민심사단 백목련

“과거 마을 공동체 연희로서 풍물굿 의미를 살려낸 공연으로 볼수 있고, 연행자들은 마을연예인으로
서 의미를 살필 수 있고 현재의 생활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결로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지역(마을)의 문제를 이슈화한 시도와 구성이 돋보인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풍물과 재담으로 마당예술에 적합한 형식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우물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풍물연주와 액막이타령 등은 신명 그 자체였다. 노령의 출연자들이 흐느적거리는 발걸음조차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나비의 꿈(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코스모스 핀 장사래 (송의2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노년의 나비는 혼자 밥을 먹는다.
마주 앉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비들은 남은 여력을 다해 훨훨 날아가고자 한다.
모두와 함께.



한 줄 심사평

“내일의 나의 모습을 본 듯 가슴이 뭉클하게 관람함. 전반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놀래 였음.”

— 주민심사단 백목련

“어르신들의 실생활인지 꿈을 말씀하시듯이 꿈결같이 표현하시는 것이 잔잔한 여운이 남습니다.”

— 주민심사단 김은숙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모습 멋집니다. 꼭 나비가 되어 소원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도 높고 짜임새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 주민심사단 김미경

“마당극의 리얼리티가 돋보이는 공연임. 무대위 배우들의 움직임이 자체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성과 상징성이 있으므로 인해 자체가 리얼리즘이다.

마당예술제라고 하는 열린 무대, 열림 참여의 특질이 가장 잘 보이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 팀, 이 공연에 기량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추어든 생활예술인이든 마을연행자든 이 참여자들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또! 환경계엄령 - 공수대첩(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어수선 (도화2·3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또! 비상계엄령이다. 가뭄에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안일하게 받아들인다. 허나 환경 재앙은 멈출 줄 모르고 인간은 뒤늦게 노력해 보지만 소용없다. 환경에 적응한 미래 가족의 명절 날의 모습과 추억여행, 할머니의 소원을 위한 손주들의 물을 찾는 동네탐험 여정이 시작된다.



한 줄 심사평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 주민심사단 백목련

“마당극, 민족극의 양식적 활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무대와 객석을 단절 시키지 않고 배우들에 의해 넘나들이 있고 관객과 댕거리를 하며 현장성에 특징이 잘 살아있다. 열린구조 장르인 마당극의 장점을 활용한 생활문화예술 활동 모델로 권장할 공연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이슈, 네러티브, 배우(구성원의) 호흡, 적극적인 연습효과를 볼 수있는 공연이었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배우들이 객석에서 등장하며 관객들이 주제의식으로 접근하도록 배치한 분장, 음향효과, 소품 등은 시작부터 이 작품을 기대하게 했다. 환경재앙을 겪는 미래에서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빌어 현재를 되돌아볼 때는 관객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며 몰입시켰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新 별주부전 : 미추홀 캐슬(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불타는 모난돌 (학익2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좋은 교육환경을 쫓아 육지로 떠나가는 바다 생물들, 보다못한 용왕은 육지에서 유명한 입시 코디네이터 '토선생'을 모셔와 바다학교의 교육을 살리라 명한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 '자라대신' 그와 바다학교의 운명은?



한 줄 심사평

“아이들과 같이 왔는데 초등1학년 아이가 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도 저런 학교가 있으면 보내고 싶습니다.”

— 주민심사단 박현정

“재개발, 도시와 지방, 교육이라는 현실적 주제를 담아 사설, 재담으로 해학성을 구현하였고, 인물 캐릭터 표현에 있어서 역설적인 표현 방식으로 임팩트를 높였다. 현대사회 소수성에 대한 전형성을 보여주었고, 특히 아이들 시선으로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미학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출연한 유일한 작품이다. 짧은 글을 하나 읽어도 엄마 앞에서나 아이 앞에서는 어려운 법이다. 출연자들이 지나치게 차분한 모습이어서 실수는 없었지만 재미(공감)는 반감되었다. 엄마들의 영원한 숙제인 교육문제가 아이들에게 익숙한 옛이야기 형식으로 드러남으로써 출연자들의 특성을 잘 살렸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우리 동네가 왜 용마루야?(영상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용마루사람들 (용현2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우리 마을 알아보기'숙제를 해야하는 학생들, "우리 마을에 기차가 다녔다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구터미널이 어디야?"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용현2동의 과거와 현대를 돌아 보며, 미래를 상상해 본다.



한 줄 심사평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영상에 담아 두 어린이의 설명을 담았는데, 우리의 역사의 한 단편이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 주민심사단 백목련

"영상 장르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영상.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예술을 매개로 활동하는 가치가 있고 현재 시점의 지역 공통 주제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공감하고 나눔으로서 마당축제의 의미를 더 했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그렇게 며느리가 된다(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클로벌 (다문화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난 이슬방울들...
다른 문화와 언어, 인식 속에서 여러 과정과 삶을 거쳐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간다. 그리고
여기 미추홀에서 모여, 며느리가 되고, 우리들의 가족이 된다.



한 줄 심사평

“현대화 문제를 잘 파악하여 연극으로 잘 만들어 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다른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대조한 것이 너무 즐겁게 잘 표현했어요. 너무 똑같은 우리나라(문화)를 표현해주셔서 놀랐습니다.”

– 주민심사단 김소희

“다문화. 우리의 문화도 나쁜 건 바꿔야죠.”

– 주민심사단 황학수

“지역의 소수성을 보편의 관계로 연결시켰다.
뻔하게 다가오는 우리사회 문제점인 '다양성 부재'의 문제를 다문화 주체인 당사자들에 의해 연극이라는 매개를 활용하여 의사 표현한 작품이다.
예술활동의 주체가 되고 소수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함을 정당화한 당사자성이라는 미학적 가치를 갖는다. 다름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매개역할자로 이어가길 기대한다.”

– 전문심사위원 우종필

비, 그리고 동양장사거리(연극)



공연영상 보러가기

공연팀

넬리리아 (주안6동 마당예술동아리)

공연내용

동양장사거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여인이 있다. 오늘은 딸이 출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비가 오기 시작한다. 비오는 동양장사거리에 스며있는 추억을 돌아보니, 이 장소의 변화와 나의 세월이 함께 녹아있음을 유난히 느끼는 어느 날의 단상.



한 줄 심사평

“발전도 개발도 좋지만 추억이 어린 동네는 보존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담아 주민들이 표현한 연극이 가슴에 남습니다.”

— 주민심사단 백목련

“도시재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동양장사거리에 살고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 주민심사단 유문희

“비, 동양장사거리 새로운 감회가 도네요. 옛 생각이 그대로 재현되어 감개무량합니다.”

— 주민심사단 황학수

“미추홀수다 - 우리 마을의 이야기”라는 주제의식을 노련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다. 얼마 전 사라진 동양장과 그 주변의 과거 상습침수 사태에 관한 이야기. 이웃과 함께 삼 세대를 넘나들며 풀어낸 서사가 마치 그때 거기에서 내가 겪은 것처럼 관객들에게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배우들의 나무랄 데 없는 연기와 배경음악, 분장, 소품 등 군더더기 없는 짜임새가 이 작품을 돋보이게 했다.”

— 전문심사위원 신미선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놀래'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시상식

- 일시 : 2019년 11월 23일 (토) 오후 7시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4층 학산소극장
- 내용 :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전문심사, 주민심사를 통한 5개부분
(작품상, 마당상, 공동창작상, 놀래상, 미추홀수다상) 시상

NO	상 이름	시상	시상결과	시상기준
1	작품상	미추홀구 구청장 김정식	도화2,3동 - 어수선 주안6동 - 놀리리아	전문심사위원 3인 심사
2	마당상	미추홀구 구의회의장 배상록	학익2동 - 불타는 모난돌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 마냥 용현5동 - 캡틴걸스	
3	공동창작상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이회만	송의2동 - 코스모스 핀 장사래 다문화 - 클로벌 청소년 - 상상치 못한 정체 송의1,3동 - 글보다 꽃할매	
4	놀래상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관실	학익1동 - 학나래두드림 용현2동 - 용마루사람들 용현1,4동 - 한결	
5	미추홀수다상	미추홀학산문화원장 이회만	도화2,3동 - 어수선 주안6동 - 놀리리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 마냥	주민심사단 70인 심사



단체사진



작품상



마당상



공동창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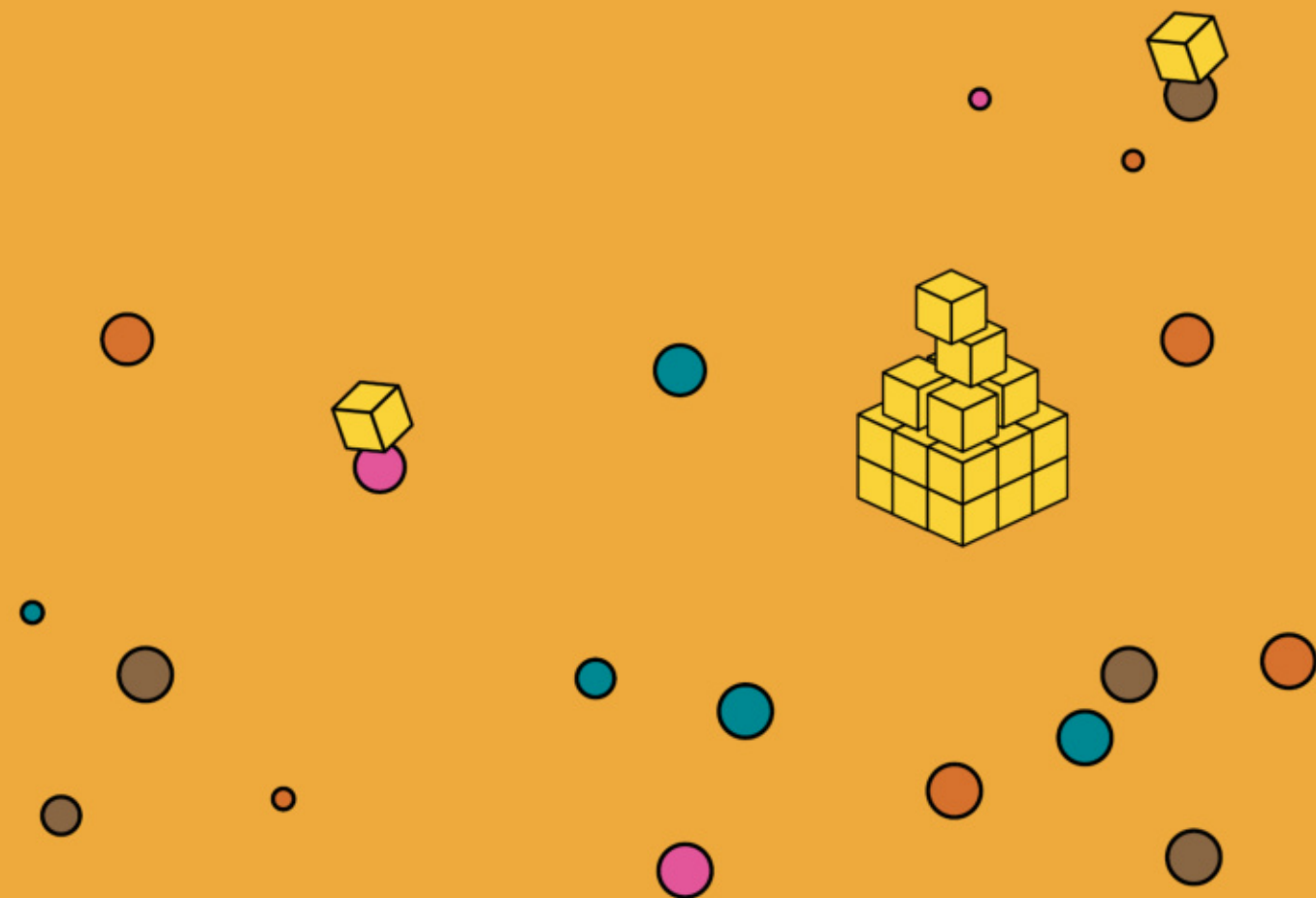


놀래상



미추홀수다상

학산마당예술'놀래'
5일의 이야기



제6회 시민창작예술제
2019
학산마당예술 '놀래'

미추홀수다

마당
예술
2019
11.19.(화)
~ 23.(토)
학산소극장

11.19(화) 기획전시 오픈
개막식
11.23(토) 오후 2시

- '동네, 살아있다'展
- 주민 공동창작 작품전시
- 전시오픈파티&주민체험
- 문화예술체험(상설운영)

11.21(목)~11.22(금) 전야행사

- 마당극단'홍다' 공연
- 생활동아리&예술단체 콜라보 공연
- 동네인형놀이단 공연
- 어린이 연극놀이 워크숍

11.23(토) 개막 및 경연마당

-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 개막행사 및 축하공연(2시)
-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 시상
- 학산마당예술'놀래' 폐막행사

주최·주관 미추홀학산문화원 후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 032-866-3994 www.haksanculture.or.kr

시민창작예술제 학산마당예술'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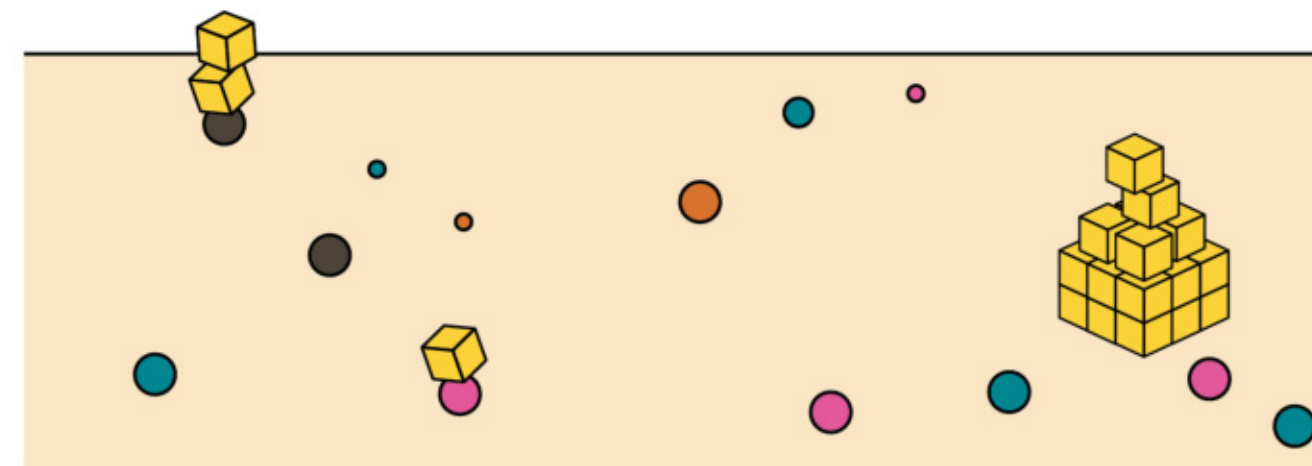
학산마당예술'놀래'는,

지역문화를 주체적으로 창조해가는 미추홀구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가득 담긴 시민창작예술제입니다.

여섯 해를 맞이한 2019 학산마당예술 '놀래'는 '마당극'에서 '마당예술'로 그 의미를 확장하였습니다. 올 해 주제는 '미추홀수다'로, 미추홀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마당극 공연으로 풀어내었고, 공동창작 판화 및 주민작품 전시와 문화체험활동 등 주민들이 직접 마당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즐기고 나누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에서 2019년 11월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5일간, 날짜별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시민예술부터, 전문예술, 혹은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예술가가 그 동안 열심히 흘린 뜨거운 땀방울을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시민창작예술의 즐거움을 펼쳐낸 한마당을 돌아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1. 기획전시 <동네 살아지다展>

- 일정 : 2019년 11월 19일(화) 16:00 * 전시 오픈닝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커뮤니티홀

마을과 동네의 의미가 흐려지고, 이웃 가족 간에 소통이 무뎌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미추홀구의 현재와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예술적 접근으로 기록하고자 노력 해왔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 사라지고 매일 보던 이웃이 떠나는 도시 개발의 현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은 흔적만 남아 역사가 된 현장까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닿아있지 않은 '이웃'들이 생각하는 동네에 대한 기억도 우리가 문화예술로 기록해야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네, 살아지다> 전시는 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현장입니다.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또는 사라져가는 장면과 이야기들을 사진, 판화, 그리고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을 자세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동네의 추억이나 스치듯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변과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섹션1.

동네, 살아지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하며 변화하고 진화해 가고 있다. 사람의 삶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비로소 '인생'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그 여정으로서의 인생을 우리는 '살다'라고 하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듯 사람이 모여 살아온 곳, 동네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 우리는 곧 사라질 동네에 대해 시선을 두었다. 주안3동의 일부가 조만간 허물어지고 새로운 공간이 들어 설 예정이다. 동네 주민들은 모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있는 상태다.

"인하로222번길 52-22",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받았지만 이 길과 이 주소의 집은 곧 사라진다. 주안동 862-37번지였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집이었고, 동네였다.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은 십수 년 아니 수십 년 이상을 모여 살며 희노애락, 생노병사의 삶의 과정들을 서로 겪어가며 살아왔다. 집과 집, 골목과 골목, 사람과 사람 이러한 관계들에서 수많은 추억과 역사와 이야기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한 동네가 사라진다.

이러한 동네 주민들의 아쉬움을 사라져가는 동네를 기록하고 아카이빙이라는 방식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동네의 역사를 알아보고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사진으로 동네의 풍경을 담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러한 동네의 이미지들을 토대로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커뮤니티 판화의 방식으로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섹션1. 동네, 살아지다.〉는 본 전시의 메인 전시로써, 크게는 주민들이 답사를 통해 기록한 사진 작품들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대형 목판화 그리고 개인 별 판화작품 작품이 전시 된다. 전시 연출은 어르신들의 삼삼오오 모여 놀던 평상을 설치하여 정 많은 동네를 재현하였고, 사진작품들과 판화작품들은 주민들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동네에 마실 나온 것 같은 정겨운 전시구성을 느낄 수 있다.

〈기억의 사진-집〉 작품은 아크릴 판과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들로 집 모양의 조형물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크게 보면 집 모양이지만 집의 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안3동의 집들로 구성된 또 다른 동네의 모습이다. 사진들을 모았기에 사진집이기도 하고, 사진으로 만든 집이기도 하다.

*참여자 명단

김영신, 김현자, 남용란, 백목련, 윤진한, 전상미, 전수연, 한선화, 황미애

섹션2.

사람이 있다.



〈섹션2. 사람이 있다.〉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전시프로그램으로, 종이 상자들을 이용하여 집체적인 조형작업이 군집을 이루면서 완성되어 가는 협업 작품이다. 하나의 유닛인 상자는 건물이나 집일 수도, 하나의 사람일 수도 있다. 참여하여 만드는 사람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며, 이렇게 완성된 상자들은 쌓기도 하고 모아 놓기도 하면서 일종의 가상의 동네이고, 사람이 된다. 사람이 존재하는 “있다”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어져 관계가 만들어 지는 “잇다”의 개념을 참여 활동으로 만들어 지는 전시다.

섹션3.

응답하라! 주인선



예전에 주안역에서 제물포역까지 달리던 노선 주인선(朱仁線)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어 놓는다. 주인선은 주안역과 인천역을 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노선은 주안역부터 제물포역까지는 경인선 옆을 달리는 노선이었다. 부평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와 인천역 남부 근처에 주둔하였던 미군 부대 간의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하여 개설되었다. 1985년까지 하루 4차례씩 열차가 오가며 미군의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주한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 열차가 운행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인천에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는 입영 장정들을 수송하기도 하였다. 1994년 4월 22일에는 제물포역 근처에서 인천역 남부 구내까지의 1.8km 구간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현재 주안역에서 제물포역 입구까지의 구간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물포역 앞에서 옛 남인천역에 이르기까지 6개 지구로 나뉘어 주인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근현대사적 이야기가 있는 동네를 동네인형놀이단과 함께 〈주인선(朱仁線) 미담완보(美談緩步)〉를 통해 지역알기 특강이 기초가 되었다. 〈섹션3. 응답하라! 주인선〉에서는 관내 유치원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이 주인선에 관한 그림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 된다. 동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세대들은 이러한 주인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이 전시 부스에서는 인형극의 인형들도 함께 전시가 될 예정이다.

2. 전문마당극 <돌아온 약장수>

마당극단 '줄다' 공연

- 일정 : 2019년 11월 21일(수) 19:00
- 장소 : 학산소극장

만병통치예술단의 묘기열전! 재미난 만담부터 아슬아슬한 외발자전거 묘기로 시선을 사로잡는 마당극



3. 삶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생활예술동아리+전문공연팀 콜라보 무대

- 일정 : 2019년 11월 22일(금) 19:00
- 장소 : 학산소극장

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와 민요동아리 아라리요, 그리고 전문공연팀 올라온드뮤직 더울.

삶과 어우러지는 예술을 만드는 무대



4. 인형극 [주인선3.8km 이야기]

주민공연-학산 동네인형놀이단

- 일정 : 2019년 11월 22일(금) 17:00 / 18:00 (2회)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동아리실1

1959년 5월 남인천역과 주안역까지 미군 군용물자를 후방에 이송하는 역할로 완공된 주인선.

1985년 11월 폐선이 된 주인선의 역사와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5. 얼렁뚱땅? 이야기 나와라 똑딱!

어린이 연극놀이 워크숍

- 일정 : 2019년 11월 22일(금) 16:30 / 17:30 (2회)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프로그램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

- ▶ 스카프놀이 및 연극놀이, 스토리 찾기, 아이템 카드 만들기, 발표 (학산소극장 상주단체 극단 아토 연계)



6. 체험 프로그램

활동가와 함께 문화예술을 나누는 상설프로그램

재활용박스로, 똑딱 마을짓기

레고블럭으로 주인선(기차) 만들기

- 일정 : 2019년 11월 19일(화) ~ 22(금)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동아리실2



모락모락, 따뜻한 차가 있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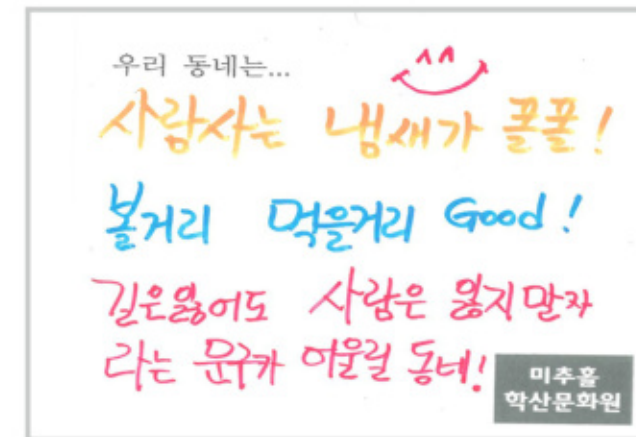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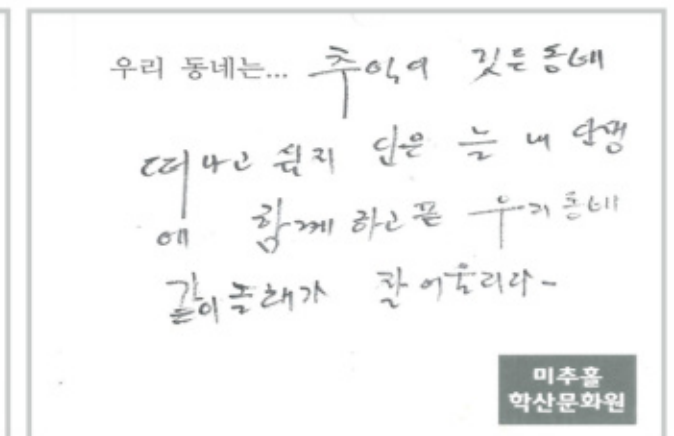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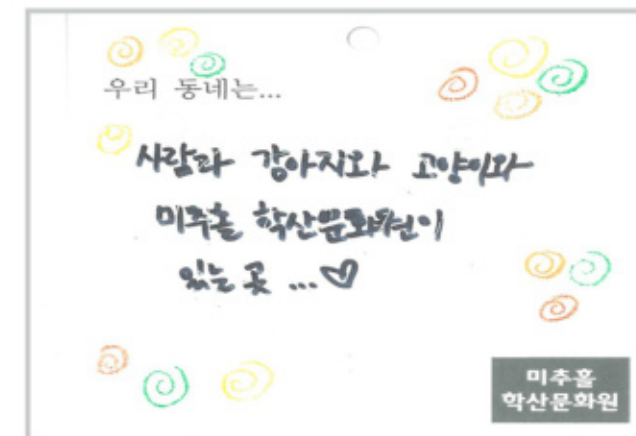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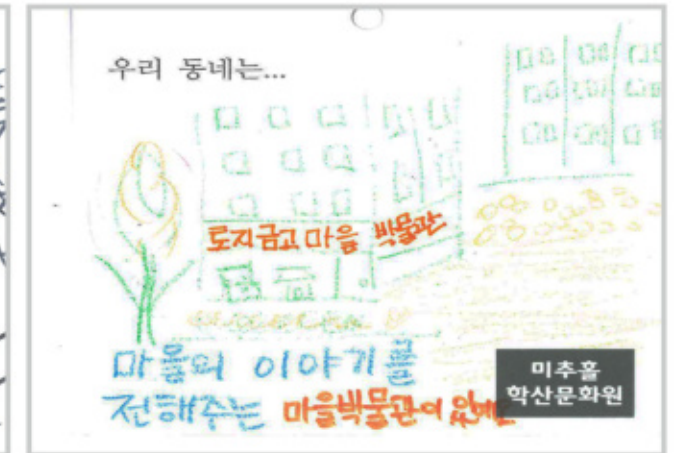
- 일정 : 2019년 11월 23일(토)
- 장소 :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 1층 부스



7. 함께 놀래,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동네와 미추홀학산문화원은요?

•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는...

포리함 라 사랑라
눈물과 나눔을 나눠주고
있으며 내가 살고 있을 때
자부심은 느끼는 그러한 멋진 곳이야
미추홀은 사랑하는 여인네
(미사모 핫~탕)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아름다운 꽃밭이다."

정겨운 아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용마루예요.
재개발되어서 새아파트가
생겼어요 ♡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행복해요. 친해지고 싶어요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웃음 꽃이 활짝
피는 동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용정공원이 있어
너무 좋은 지왕도 가깝고
문화 생활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매우 좋습니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새프란 시골보다
좋고 편하고 교통이 편하
고 깨끗한 동네다
헤이요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나같은
따뜻한 사랑들이
사는 곳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웃음 꽃
이 활짝 피는 동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상아나루로.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멋있고 사랑스럽고 정이넘치고
재미 있고 즐겁고 신나고
그럼
가공식
승평도 있고

용현5동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다같이 행동하여
하나가 되는 멋진 동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늘 함께 하려는 동네
주머니에 묻어놓은
아늑한 동네 ~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도화동** 이에요

도 화동은 제가 태어난 곳
화 동이에요. 저는 동이동에서 태어났어요.
동 화고, 친절한 곳이에요.
네에 웃어주어 줘요.
핀곳. 그곳은
마냥 도화동이랍니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저녁 시장이 있고
많은 사랑에
안락하게 다닌다
천천히 사랑
많은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행복이
가득한
귀의 동네지은
(배움동)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업산게 있다
우경도
차박하는
호랑이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행복하고 즐거운 동네**



미추홀
학산문화원

우리 동네는...



미추홀
학산문화원

•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주민들 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찾고



미추홀
학산문화원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내 인생이 이런 멋진
공간을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넘 행복해.
여러분 덕분에
사랑합니다
{문화5동}

미추홀
학산문화원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아동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공간
이곳에 있어 더욱 안전한
동네가 여겨진다.
마음까지 따뜻하다.

미추홀
학산문화원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문화의
꽃이
활력
피는 공간
우리동네에 공연장이
있어서 좋아요

미추홀
학산문화원

미추홀학산문화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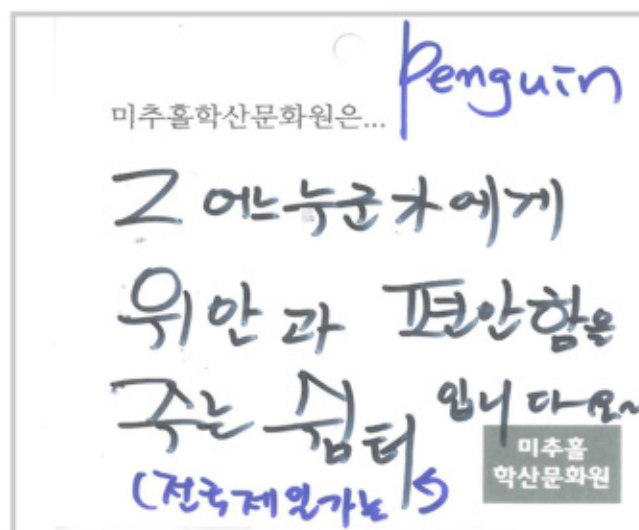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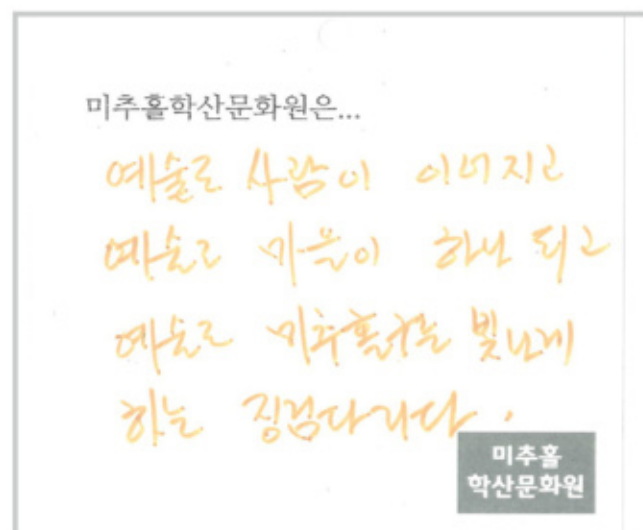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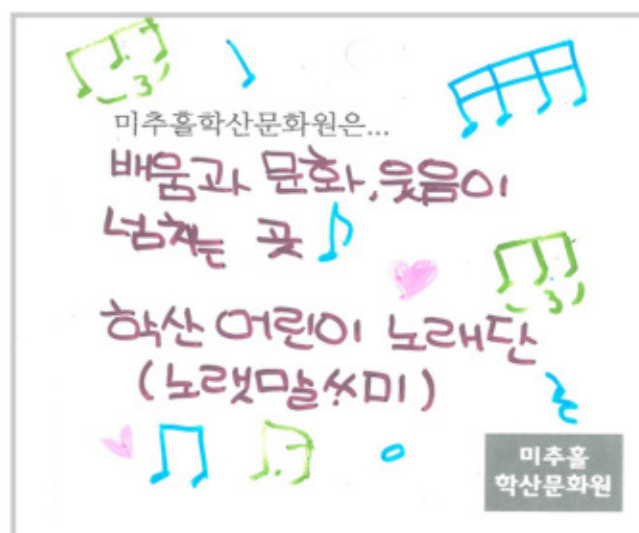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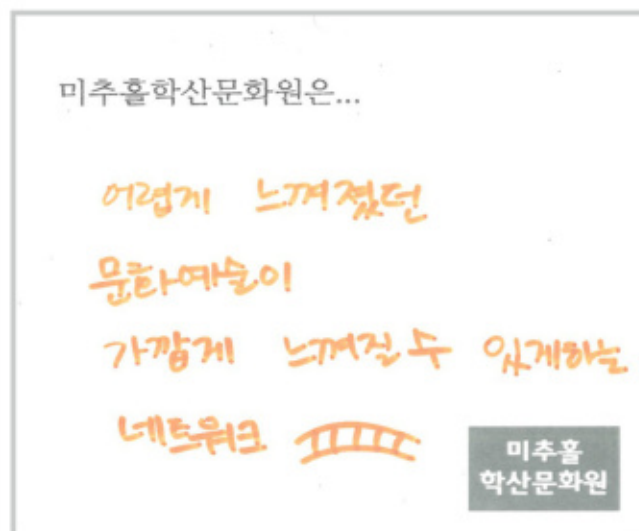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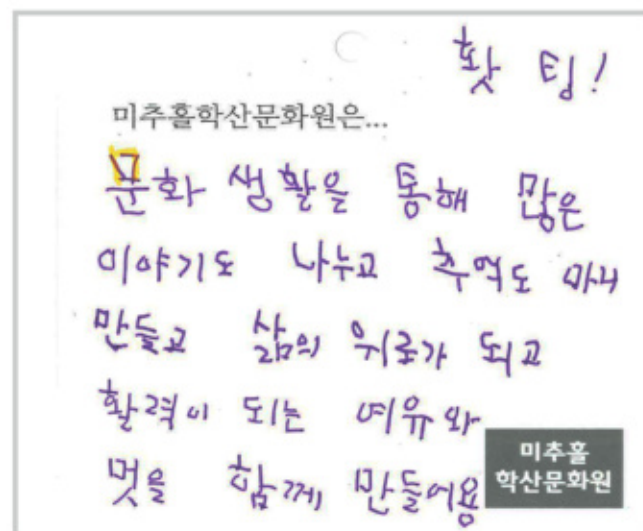
놀것도 많고.
놀것도 많고.
이것도 좋고.
모두 다 좋아

미추홀
학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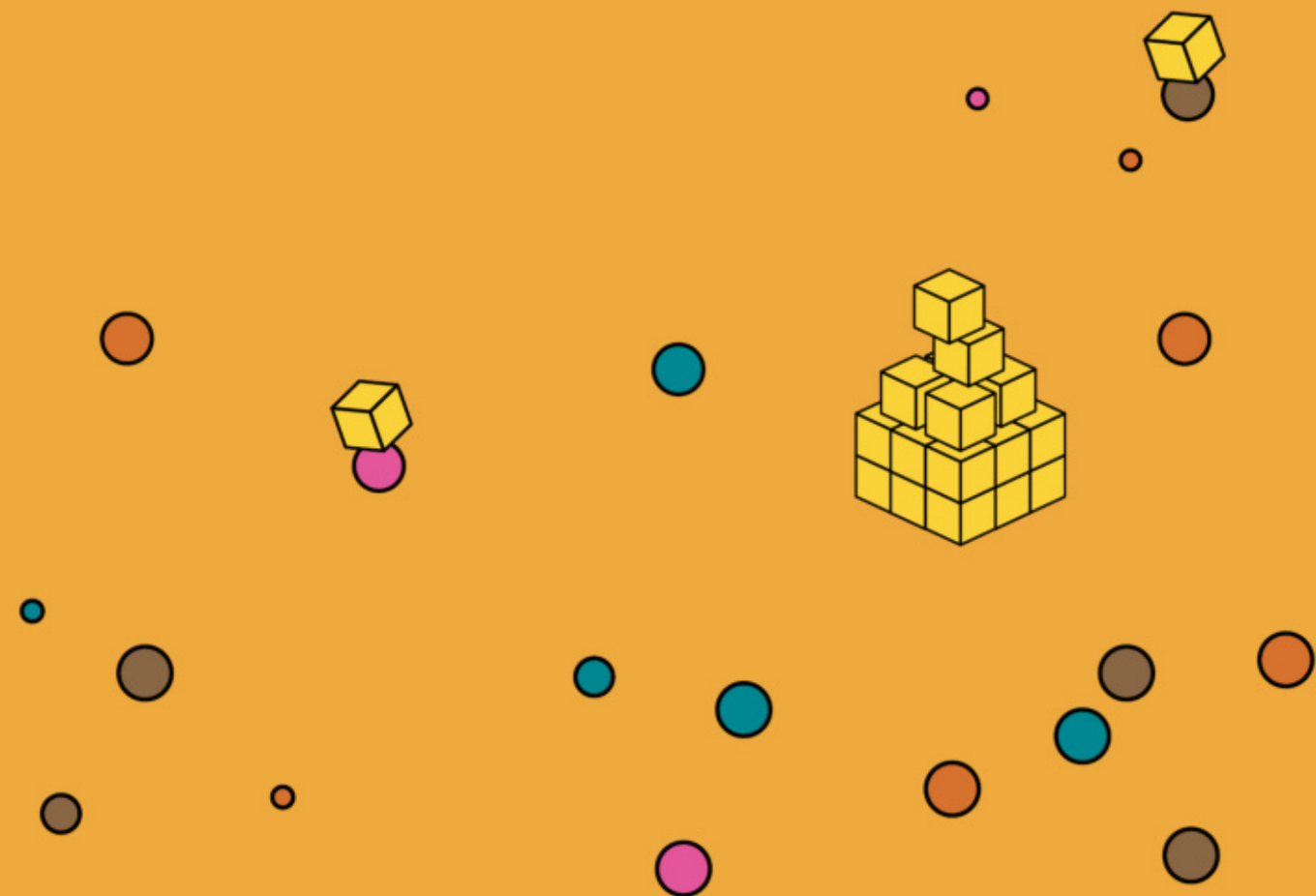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꿈의 공간

미추홀
학산문화원



함께한 사람들



마당예술동아리 참여자

박말순, 박순우, 박영순, 이종임, 장춘자, 장은화, 김순남, 김인순, 백광열, 전인경, 최순이, 김정순, 강영준, 김미숙, 김영자, 김정화, 김종분, 김훈자, 박종현, 신명복, 우인순, 이봉순, 최복숙, 김채연, 박성하, 박화예, 엄정산, 이민재, 류회국, 김경옥, 김민정, 김선영, 김은정, 이해자, 전부일, 장순남, 최은실, 이재혁, 곽애리, 김옥희, 김태순, 민경자, 박미자, 박은주, 서명숙, 유순자, 이라미, 이정금, 임정숙, 최정자, 최은희, 한명자, 홍승리, 김명원, 박양현, 박해인, 송신자, 이혜경, 조준행, 채명희, 홍성찬, 하다라 다에코, 김관영, 윤미영, 유체린, 유단희, 강정혜, 방유현, 방유건, 남수정, 최형찬, 조경희, 이준호, 조미희, 장호형, 장은호, 조현경, 김태은, 김명순, 노순선, 박현옥, 조형란, 조은영, 김행화, 박지우, 박준영, 최미자, 김찬주, 김수자, 오세익, 한경진, 배이루, 강자윤, 박금화, 반현주, 푸영 생후영, 황호병, 이애지, 고혜진, 김나경, 김시원, 박민하, 박주형, 박푸름, 송인지, 정진우, 유한용

마당예술강사

김유미, 김은미, 김정민, 이도위, 인정선, 박재현, 반승환, 오연주, 오지나, 이상명, 정성원

마당예술동아리 기록

동아리이야기 집필 오현지
활동과정 영상기록 수미미디어
공연 영상기록 나우미디어

미추홀학산문화원 사무국

박성희, 이의록, 최미영, 김동현, 하수연, 양지원, 유인숙, 이선별, 정유진

학산마당예술 '놀래' 심사단

전문심사 현광일, 우종필, 신미선

주민심사 강수자, 강정자, 구정모, 김경희, 김나리, 김미경, 김보경, 김선옥, 김성화, 김성수, 김소희, 김순옥, 김운정, 김은숙, 김인식, 김준식, 김정란, 김춘자, 김향순, 김현자, 김혜연, 나선주, 류재춘, 문경숙, 문선희, 문영길, 문 희, 박애리, 박상용, 박상철, 박현정, 박혜진, 백목련, 송순심, 안지영, 유문희, 유수연, 유정희, 이경란, 이경옥, 이경은, 이인희, 이종휘, 이진영, 임경은, 정준범, 조미라, 지순연, 지영신, 최광호, 최미향, 최연우, 최을순, 홍광호, 한명섭, 황학수

학산마당예술 '놀래' 축제 운영진

총감독 이찬영, 기술감독 김범수, 무대감독 정우진, 전시감독 윤종필

협력기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미추홀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추홀구청소년자원센터꿈드림,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석바위시장상인회, 수봉도서관, 도화선동아파밀리에 임대위, 용현2동주민자치위원회, 용현초등학교, 미추홀구청행정복지센터(송의1·3동, 송의2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2·3동, 주안6동) 극단 아토, (사)솔빛마을

2019 학산마당예술'놀래'

마당예술동아리 이야기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이 회 만

발행처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26

T.032-866-3993~4 F.032-866-3971

haksanculture.or.kr

facebook.com/mchhaksan